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15년 2월

임상심리학 석사학위 논문

대학생의 행동억제와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조선대학교 대학원

상담심리학과 임상심리학 전공

강 혜 영

# 대학생의 행동억제와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The Mediating Effects of Rejection Sensitivity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Behavioral Inhibition and Social Anxiety of College Students

2015 년 2 월 1

조선대학교 대학원

상담심리학과 임상심리학 전공

강 혜 영

대학생의 행동억제와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지도교수 정 승 아

이 논문을 석사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15 년 2 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상담심리학과 임상심리학 전공

강 혜 영

강혜영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부교수 김택호 인

위원 조선대학교 부교수 권해수 인

위원 조선대학교 조교수 정승아 인

2015년 2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목 차 ..... i  
 표 목차 ..... iii  
 그림 목차 ..... iv  
 국문 초록 ..... v

## 목 차

I . 서 론.....1  
   A.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1  
   B. 연구문제 .....5  
  
 II . 이론적 배경 ..... 6  
   A. 사회불안 ..... 6  
     가. 사회불안의 개념 및 하위유형 ..... 6  
   B. 행동억제 .....8  
     가. 행동억제 개념 및 체계이론.....8  
     나. 사회불안과 행동억제 .....10  
   C. 거부민감성 ..... 13  
     가. 거부민감성의 개념 ..... 13  
     나. 거부민감성 모델 ..... 14  
     다. 사회불안과 거부민감성 ..... 15  
   D. 행동억제와 거부민감성.....17

III. 연구 모형 및 연구 가설 .....	22
A. 연구 모형 .....	22
B. 연구 가설 .....	22
IV. 연구 방법 .....	24
A. 연구 대상 .....	24
B. 연구 절차 .....	24
C. 측정 도구 .....	25
D. 자료 분석 .....	28
V. 연구 결과 .....	31
VI. 논의 및 결론 .....	45

참고문헌

부록

ABSTRACT

## 표 목 차

<표 1> 척도의 신뢰도 .....	31
<표 2>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 ( $N = 300$ ) .....	32
<표 3> 변인별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 .....	33
<표 4> 거부민감성 척도의 탐색적 요인분석 .....	34
<표 5> 행동억제 척도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	36
<표 6> 측정모형의 비표준화 회귀계수 .....	38
<표 7>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	38
<표 8> 구조모형의 회귀계수 .....	39
<표 9>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 .....	40
<표 10>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	41
<표 11>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분석 결과 .....	43



## 그림 목 차

<그림 1 > 기본 가설 모형 .....	22
<그림 2 > 측정모형 .....	37
<그림 3 > 구조모형 .....	39

## 국문초록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행동억제와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이 둘의 관계를 어떠한 요인이 매개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제 3의 변인으로 거부민감성을 설정하고 이들의 관계를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들에 기초하여, 거부민감성이 행동억제와 사회불안증상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라는 가설을 수립하였으며, 또한 행동억제 성향이 사회불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고, 동시에 거부민감성을 매개로 하여 사회불안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를 위해 광주, 전라남도 소재하고 있는 4개 대학교 340명의 대학생들에게 대인관계에서 상호작용으로 겪는 불안을 측정하는 상호작용불안척도(SIAS), 대인관계에서 다른 사람이 자신을 주시하는 상황에서 겪는 관찰불안, 다른 사람이 자신의 수행을 관찰하는 상황에서 느끼는 수행에 대한 불안의 정도를 측정하는 사회적 공포 척도(SPS), 초등 저학년(1-3학년) 시절 행동억제와 관련된 수줍음, 사회적 회피, 신체화, 단순 공포, 분리불안 5가지 요인으로 구성된 한국판 자기보고식 회고적 행동억제 척도(K-RSRI), 성인 초기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타인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18가지의 상황(부모, 친구, 교수, 연인, 잠재적 연인, 잠재적 친구 등)을 제시하는 거부민감성 질문지(TRSQ)를 구성하고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각 측정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 기존에 수행된 연구에 근거하여 각 측정변수들 간의 관계를 설정하고 구조방정식모형(SEM)을 이용해 직·간접효과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 의해 확인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행동억제 성향, 거부민감성, 사회불안의 측정변수들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측정 변수들 간에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였다. 즉, 사회불안은 행동억제, 거부민감성과 각각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둘째, 행동억제, 거부민감성, 사회불안 간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본 결과, 행동억제와 사회불안 사이에 직접효과가 있었으며, 행동억제가 사회불안으로 발달하는데 있어, 거부민감성의 간접효과를 나타내는 모형이 지지되었다. 또한 행동억제와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을 매개로 행동억제가 사회불안으로 발달하는데 간접적인 영향력이 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할 때, 사회불안발달에 있어, 행동억제나 거부민감성 같은 인지-정서적 경향성이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행동억제와 거부민감성이 모두 높은 경우 사회불안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 시사되

었다. 이는 사회불안을 호소하는 대학생들을 상담하는데 있어, 행동억제 성향이 어떤 경로를 거쳐 사회불안을 유발하는지를 이해하고 치료적 개입에 있어 우선적으로 개입할 변인을 설정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사회불안 · 행동억제 · 거부민감성 · 매개효과

# Ⅰ. 서론

이 장에서는 지금까지 국내외적으로 사회불안장애의 발생과 유지과정에 관한 다수의 연구들을 기반으로 사회불안과 관련된 변인과 관련하여 본 연구자가 연구자하고 하는 목적을 밝히고자 한다. 사회불안을 연구하는데 있어 사회불안의 원인으로 행동억제가 관련 변인임이 밝혀진 가운데 행동억제와 사회불안의 관계를 매개하는데 있어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고, 행동억제와 사회불안의 관계를 매개하는데 있어 거부민감성을 제시한 이유에 대해서 기술하였다.

## A.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면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끊임없이 상호작용한다. 따라서 인간이 사회불안을 경험하게 된다면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제약과 고통이 따르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사회공포증(social phobia) 또는 사회적 불안(social anxiety)은 사회생활 및 인간관계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문제로서 비교적 흔한 심리적 장애이다(원호택, 조용래, 1999). 2011년 정신질환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만 18-74세 성인 6,022명을 대상으로 정신과적 질환 유병률 조사결과 25개 정신과적 질환 일년유병률은 16.0%(男16.2%, 女15.8%), 알코올·니코틴 사용 장애를 제외하면 10.2%(男6.1%, 女14.3%)로 2006년 대비 2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정신질환별 조사결과 불안장애(사회공포증, 공황장애, 강박증,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도 남녀 모두에서 늘어나는 추세로 나타났다. 평생유병률은 2006년 6.9%에서 2011년 8.7%(26.1% 증가)로 일년유병률은 2006년 5.0%에서 2011년 6.8%(36% 증가)로 나타났다. 최근 일 년 간 불안장애를 경험한 사람은 245만 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보건복지부, 2011). 사회불안 장애는 적절한 치료적 개입을 하지 않으면 회복되거나 호전될 가능성이 희박한 만성적이고 평생 지속되는 장애로서(Bruce et al, 2005; Fresco &

Heimberg, 2001). 건강한 삶의 질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적응의 어려움, 우울증, 알코올, 약물 남용, 자살과 같은 다양하고 심각한 기능적 장애를 병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그 원인과 치료적 요인에 대한 연구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권은미, 신민섭, 김은정, 2009). 특히 사회불안은 대학생들이 많이 호소하는 문제 중에 하나이다. Strahan(2003)는 2년간의 종단연구에서 대학생의 22%가 사회불안을 경험한다고 밝혔다. 사회불안을 느끼면 발표장면과 같은 학업상황이나 대인관계를 포함한 사회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중·고등학교 때와는 다르게 대학생들은 낯선 사람과의 만남이 잦고, 발표나 조별과제, 아르바이트, 데이트, 면접 등과 같이 타인의 시선 및 평가에 민감한 환경을 접하기 때문에 학업 및 대인관계에서 사회불안을 경험할 가능성이 더 높다(박지연, 양난미, 2014).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대학생들이 대인관계 문제를 대학생활의 어려움으로 꼽고 있는데, 대학생의 절반가량이 면접시험 상황에서 불안을 보이며, 사교적인 모임에서는 24.7%의 학생들이 중간 이상의 불안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조용래, 원호택, 1997). 또한 홍익대학교 학생상담센터(2009, 재인용) 조사에 의하면, 한 대학에서는 대상자의 29.7%가 낯선 사람과 친해지는 것을 대인관계에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이라고 꼽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다양한 대인관계와 발표 등으로 인해 대학생 연령의 발달단계에서 사회불안이 비교적 발생하기가 쉬우며, 많은 대학생들이 사회불안을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국내·외적으로 사회불안장애의 발생기제와 유지과정에 관한 연구들이 다수 수행되었다. 사회불안장애의 발병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하나는 주로 유전적인 영향을 받아 형성된 행동억제성향이고, 다른 하나는 생애초기의 부정적 경험, 부모양육행동, 외상적 사건들, 그리고 인지적 요인 등을 포함하는 심리사회적 요인들이다(Kashdan & Herbert, 2001). 예를 들어,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 시절의 경험을 보고한 자기보고식 회고적 행동억제척도(RSRI)에서 높은 수준을 보고했던 고등학생들은 사회공포증으로 진단될 가능성이 행동억제기질이 낮은 집단에 비해 4-5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Hayward, Killen, Kraemer, & Taylor, 1998), 그 외 다른 연구들(Kagan, Reznick, Clarke, Snidman, & Garcia Coll, 1984; Neal

Edelmann & Glachan, 2002)에서도 행동억제기질이 높은 아동이 사회불안이 될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보고되었다. 한편 행동억제기질이 높다고 해서 모두가 사회불안으로 진단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즉, 행동억제기질과 사회불안의 긴밀한 관계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가 청소년기에 이르렀을 때 심한 사회불안이 나타나지 않았고(Shwartz, Snidman, & Kagan, 1999), 또한 행동억제기질과 사회불안의 관련성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된다는 결과가 국내 연구에서도 보고된 바(오경자, 양윤란, 2003), 행동억제기질로만 사회불안의 발생을 설명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사실 행동억제기질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일관성 있게 안정적인(stability)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Kagan, Reznick, Snidman, Gibbons, & Johnson, 1988; Rothbart, 1986), 최근에는 유전적 기질로 행동억제를 타고나더라도 보육의 질적인 측면, 부모의 양육행동, 교육경험의 상호작용 효과 같은 환경적 요인에 의해 그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도현심, 박성연, 윤종희, 정옥분, Rubin, 2002). 또한, 일부 학자들은 행동억제 성향이 극단적으로 높거나 또는 낮은 경우에만 안정성(stability)이 나타나며, 행동억제 성향이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아동들은 행동억제 성향의 변화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행동억제 성향이 연속적이지 않음을 주장하기도 하였다(Engfer, 1993; Park, Belsky, Putman, & Cmic, 1997).

즉, 기존의 연구들은 행동억제기질과 사회불안이라는 두 변인의 관계가 안정적으로 매듭지어져 있기보다는 어떠한 제 3의 요인에 의해 매개되거나 중재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행동억제기질과 사회불안의 관계에는 어떠한 요인들이 개입되어 작용하는가? 오경자와 양윤란(2003)에 의하면 부모 양육태도라는 변인이 행동억제기질과 외상경험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녀의 사회불안에 간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였고, 또한 아동의 행동억제성향이 발달하는데 있어 부모양육행동을 1차적 환경 변인으로 설정하고 이들의 상호작용효과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행동억제기질에 대한 부모양육행동의 개입 가능성을 강조한 바 있다(박성은, 박성연, 2001). 애착이론(Bowlby, 1980)의 영향을 받은 거부민감성 모델은 유아기 시절 일관적이지 않고, 무반응적인 거부적 양육자로부터 반복해서 거부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이후에도 중요한 타인이 자신을 거부할 것이라는 기대를 형성한다고 말하고 있다. 실제로도 불안정 애착과 거부민감성은 강한 관련성을 보이는데 국내 연구(이복동, 2001; 박희경, 2011)에서도 불안/양가형 애착을 형성한 사람들의 거부민감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다. 부모양육행동 인해 여러 가지 심리적인 문제를 만들 수 있는데, 이러한 부모양육행동 중 거부적이고 양가적인 부모양육행동으로 인해 형성될 수 있는 것이 대인관계에서 수용되지 못하고 거부될 것이라는 불안한 인지·정서적 경향성인 거부민감성이 발달함을 알 수 있다. 타인들로부터 거부당하지 않으며 수용 받고자하는 욕구는 인간의 주요한 동기중 하나라고 하였다(Baumeister & Leary, 1995; McClelland, 1987; Sullivan, 1937).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어느 누구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거부나 거절을 경험하게 된다(Downey & Feldman, 1996; Levy, Ayduk & Downey, 2001). 그런데 이러한 거부를 경험했을 때, 사람들이 나타내는 반응은 다양하다. 타인이 사소한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을 때,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며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을 타인이 거부한 것으로 인지적으로 해석하여 화를 내거나 우울해지는 사람도 있다. 또한, London, Downey, Bonica, & Paltin, (2007) 연구에서 거부에 민감한 사람들은 더 많은 사회적 관계를 맺고자 하는 강한 욕구가 있지만 자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관계를 낮게 평가하는 경향도 있다고 한다.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의 경우, 거부를 지각한 이후의 정서적 철회, 의기소침, 질투, 적개심이 포함되어(Baumeister & Leary, 1995) 상대방이 자신을 수용하고, 상대방과의 관계에 속하는 것에 대한 의심과 두려움은 주관적 안녕감을 감소시키고 관계를 파괴하는 방향으로 행동을 유도할 수 있다(Bowlby, 1980). 예를 들자면, 거부당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은 대인관계에서 더 공격적이고, 적대적인 방법으로 행동을 하며(Downey, Feldman, & Ayduk, 2000), 더 문제가 많고, 만족스럽지 않으면서 일찍 종결되는 관계를 경험한다(Downey & Feldman, 1996). 또한 거부에 민감한 사람들은 거부 경험이후에 사회불안이나 외로움 혹은 우울에 영향을 받기가 쉽다(Baldwin, 1994; Cooper, Shaver, & Collins, 1998; Rholes, Simpson, & Phillips, 1996). 이렇듯, 거부로 인해 느끼게 되는 심리적인 불편감은 대인관

계 문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 사회불안 혹은 사회공포증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사회불안의 발달과 유지를 통합적으로 설명하는 Clark과 Wells(1995)의 인지모델에서는 사회적 상황에서 보이는 비합리적인 신념과 주의전환 및 안전행동을 강조하고 있다. 사회공포증인 사람들은 사회적 상황에서 자신이 수용 받지 못할 부적절한 행동을 할 것이라는 비합리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다. 즉, 자신의 행동이 일련의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일단 사회적 상황을 이런 식으로 재앙적으로 받아들이면 자동적이고 반사적인 불안 프로그램이 작동하게 된다. 인지모델에서 설명하는 자신이 수용 받지 못할 것이라는 비합리적인 신념은 Feldman과 Downey(1994)가 말한 대인 관계 상황에서 거부당할 것이라는 불안한 기대를 가지고 있으며 거부와 관련된 자극에 민감하게 지각하고 거부당하는 것에 과민하게 반응하는 인지-정서적 과정인 거부민감성과 일맥상통한다고 보여진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행동억제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인지-정서적 요인인 거부민감성이 이 둘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 B. 연구문제

이상에서 논의된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에 근거하여 사회불안, 행동억제, 거부민감성을 살펴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행동억제와 거부민감성과 사회불안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행동억제와 사회불안의 관계를 거부민감성이 매개하여 간접효과를 보일 것인가?



## II. 이론적 배경

이 장에서는 사회 불안의 개념, 사회불안의 발병 요인인 행동억제의 개념, 사회불안과 행동억제의 관계를 알아본 후 거부민감성이 행동억제와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매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만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였다.

### A. 사회불안

#### 가. 사회불안의 개념 및 하위유형

사회불안은 사회적 상황에서 다른 사람에게 평가 받는 것을 두려워하여 발생하는 일련의 불안증상으로, 다른 사람들이 지켜보는 사회적 상황이나 타인에게 노출되는 상황에서 현저하면서 지속적으로 두려움을 느끼고, 당혹스러운 방식으로 행동하거나 수치스러워 할까봐 두려움을 느끼는 인지적-정서적 반응 양식으로 정의될 수 있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보건복지부가 전국을 대상으로 만 18~74세 성인 6,022명을 25개 주요 정신과적 질병을 앓은 경험이 있었는지 조사한 결과, 성인 10명 중 1명은 강박장애 · 공황장애 · 우울증 등의 정신과적 질병을 앓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에서도 사회공포증 · 공황장애 · 강박증 등 사회적인 관계에서 불안장애를 경험한 사람들은 지난해 비해 2006년 6.9%에서 2011년 8.7%로 증가했다(서울경제, 2012, 재인용). 이러한 결과는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과 불특정 다수와의 경쟁 속에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느끼는 불안이 점점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박지연, 양난미, 2014). 과거에는 사회불안을 일상적인 사회적 상황에서 불안을 느끼고 피하려고 하는 일반화된 유형으로 이해하였지만,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편람(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5, 2013)에서는 사회불안을 일반적인 사회적 상황에서 느끼는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예: 대화를 나누거나 낯선 사람을 만나는

것), 관찰되는 불안(예: 다른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음료를 마시거나 음식을 먹는 것), 타인들 앞에서 수행하는 것에 대한 불안(예: 연설이나 발표하는 것)으로 구분하고 이를 사회 공포증(Social Phobia)으로 진단한다. 김민선과 서영석(2009)의 연구에서 사회불안은 수행불안과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으로 구분하고,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은 다른 사람과 만나거나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느끼는 불안이며, 수행불안은 다른 사람이 자신의 수행을 관찰하는 상황에서 느끼는 불안으로 정의하였다. 박선영(2003)은 사회불안을 상호작용상황과 수행불안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상황에서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의 특징적인 점을 연구하였는데, 상호작용상황에서 불안을 보이는 사람들은 권위 있는 사람 또는 낮은 사람들과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관찰당한다고 느낄 때 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수행상황에서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은 자신의 외모나 행동에 과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자신이 어떻게 보여 지는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불안은 대체로 청소년기에 발병하여 그로 인해 평생 동안 장애가 유지되는 만성적인 경과를 보이는 것 (Kessler, Foster, Saunders, & Stang, 1995)으로 알려져 있다. 적절한 사회불안은 개인의 동기를 자극하여 수행을 향상시키는 등의 일상생활 적응적인 도움을 주지만, 과도한 사회불안은 대인관계에서나 일상적으로 참여하는 사회활동에 지장을 초래한다. 사회불안장애를 가진 사람은 사회기능적인 측면, 학력, 경력, 학력에서 결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Heimberg & Becker, 2002; Katzelnick et al, 2001), 건강한 삶에 대한 개인의 만족도도 낮았다(Hanbrick, Turk, Heimberg, Schneier, & Liebowitz, 2003). Beidel, Tuner, & Morris, (1999)연구에 의하면, 사회불안이 높고 사회공포증 진단을 받은 청소년들은 전반적으로 정서적 과민성을 보였으며 고독감, 감전부전증 등이 높았고, 사회적인 고립으로 인해서 우울장애가 발병할 확률이 높다(Alloy, Kelly, Mineca, & Clements, 1990). 또한 등교 거부, 신체화 장애, 약물남용, 우울증 등의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보고된 바(Essau, Conradt, & Peterman, 1999), 이러한 연구들에서 청소년기의 사회불안이 적응에 매우 유해한 요소로 작용하고 정신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

조용래(1999)는 사회적 자기(social self)에 대한 부정적 개념이 사회불안을 설명하는 핵심적인 인지적인 요소라고 보고하였으며, 사회불안장애를 나타내는 일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역기능적 신념과 사회불안장애와의 관계에 서 부적응적인 자동적 사고의 매개효과를 밝혔다. 또한 사회불안이 높은 사람들 대부분이 보편적으로 자신에 대한 부정적 신념을 가지고 있었으며, 자신의 행동이나 외양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특히 사회적 상황에서 그러한 경향이 더욱 강한 것으로 보고되었다(이정윤, 1996). 청소년기는 자의식의 증가하는 시기로 이로 인해 자신이 타인의 평가 대상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성이 두드러질 뿐 아니라, 시험, 발표, 스포츠 등과 같은 과제 수행을 통한 개인의 사회적 평가 상황이 늘면서, 사회적 발달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또래 관계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사회불안을 경험할 위험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게 된다( Crozier & Burnham, 1990; Morris & Masia, 1998). 특히, 청소년이 사회적인 상황에서 느끼는 두려움은 수행 및 검사 상황(31.1%), 대중 앞에서의 발언 및 다른 사람과의 대화 상황(28.9%), 사회 활동의 참여 상황(7.0%)으로 나타나(Essau, Conradt, & Peterman, 1999), 대체로 대인관계와 특정적인 과제의 수행과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사회불안은 대인 관계에서 경험하는 대인 불안과 특정 수행 상황에서 경험하는 수행 불안으로 나뉘며, 각 불안을 예측하는 변인 및 관련 변인에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오경자, 양윤란, 2003). 이를 토대로, 청소년의 사회불안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대인 관계 상황과 특정 과제의 수행이 요구되는 상황을 나누어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도현정, 김정미, 2014).

## B. 행동억제

### 1. 행동억제 개념 및 행동억제 체계이론

행동억제(behavioral inhibition)는 처음 접하거나 친숙하지 않은 사람, 상황, 또는 사물에 노출되었을 때 일관되게 두려워하면서 회피하는 경향을 보

이는 기질을 말한다(Kagan, 1994; Kagan, Reznick, & Snidman, 1988). Gray(1981, 1982)는 행동과 정서를 기초로 하고 있는 두 가지의 일반적인 동기체계로 행동억제체계(BIS)와 행동활성화체계(BAS)를 제안했다. 행동억제체계와 행동활성화체계는 서로가 독립적이고 구분되는 신경기저와 작용하는 방식을 가졌기 때문에, 이 두 체계에서 사람들이 보이는 민감성은 각각 독립적으로 보이리라고 가정할 수 있다. 활성화 및 접근과 억제 혹은 철수의 두 동기 체계는 기질이나 성격특성 및 광범위하고 전반적인 정서 경험과도 밀접하게 관련된다고 가정된다. 또한, 지나치게 높은 행동억제체계의 민감성은 불안 장애의 발달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행동억제체계는 정서적 불안정성-신경증 경향성(neuroticism) 및 부정적 정서성(negative affectivity)과 밀접하게 관련(Larsen & Ketelaar, 1991)되는 반면, 행동활성화체계는 외향성(Costa & McCrae, 1990) 및 긍정적 정서성(positive affectivity; Watson & Clark, 1984)과 관련된다. Davidson (2000)은 행동억제체계와 행동활성화체계에서의 민감성의 차이는 정서 양식(affective style)의 차이를 만들고 이런 정서 양식의 차이는 기질, 성격(Gross, Sutton, & Sniderman, 1988) 및 정신병리에 대한 취약성과 밀접하게 관련된다고 지적한다. 이런 행동억제체계와 행동활성화체계에서 민감성의 차이는 행동억제 성향을 가진 취약한 사람에게서 특정 정서양식(affective style)이 만들어질 수 있고, 특히 행동억제체계와 관련된 정서적-불안정성(neuroticism), 부정적 정서성(negative affectivity)이 발달할 수 있음을 가정할 수 있고, 이는 행동억제 성향과 특정 정서양식(affective style)이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Gray(1990)는 정서와 인지를 매개하는 뇌 체계를 설명하면서, 행동억제체계(behavioral inhibition system: BIS)는 위험 단서 및 처벌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행동을 하지 않게 하는 심리적인 멈춤 장치라고 설명했다. 국내 연구로는 김교현, 김원식, (2001)이 이러한 체계는 불안한 정서와 관련된 단서, 즉 좌절, 슬픔, 공포, 불안과 같은 부정적으로 느껴지는 정서를 경험하여 현재 하고 있는 행동이나 이전에 계획하였던 행동을 멈추게 하거나, 한발 나아가서는 행동을 계획하지 않게 하여 환경에서 또 다른 위험 단서들을 찾도록 유도하는 동기체계라고 설명하였다. 또 다른 연구(서경현, 2008)에서도 이 체

계는 친숙하지 않은 사람이나 상황에 접근하는 행동을 철수시키면서 낯선 사람과의 상호작용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든다고 설명했다. 행동억제체계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행동억제 성향의 1차적 원인이 개인이 생물학적으로 타고난 유전적 측면에 있기 때문에 행동억제체계가 기질적인 측면을 가진다고 가정한다(Kagan, Reznick, & Snidman, 1987). Gray(1990)는 연구에서 이 체계와 긴밀하게 관련된다고 가정되는 뇌신경의 기저는 혐오적 동기체계에 속하는 중격해마체계(septo-hippocampal system)와 뇌간으로부터의 구심성 모노아민계로 특히, 세로토닌 경로라고 설명했다. 국내 연구(김교현, 김원식, 2001)에서도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부정적인 결과를 예상 하는 상황에서 흔하게 경험하는 불안, 슬픔, 좌절, 공포 등의 정서는 행동억제체계의 높은 민감성과 밀접하게 관련됨을 설명했다.

행동억제체계는 불확실하거나 새로운 것에 대하여 부정적 정서 및 행동 반응이며, 이 체계가 더 큰 활동성을 가지게 될 경우 위협단서나 처벌에 직면한 상황에서 불안을 경험할 가능성이 증가한다(Gar, Hudson, & Rapee, 2005; Gray, 1990). 행동억제체계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나타나는 기질적 요소(Fox, Henderson, Marshall, Nichols, & Ghera, 2005)로서, 아동기 시절에 행동억제 성향이 강했던 사람은 청소년기와 성인기에 불안장애나 사회공포증으로 진단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 기존 연구에서 증명되었다(Gladstone & Parker, 2005; Gladstone, Parker, Mitchell, Wilhelm, & Malhi, 2005). 행동억제체계와 불안장애와 관련된 연구(Davidson & Sutton, 1997; Harmon-Jones & Allen, 1997)에서도 행동억제체계와 불안장애의 관련성을 생물학적인 기제로 설명하면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혐오의 감정을 느끼거나 불안을 경험할 때, 우측 전전두엽(prefrontal lobes)의 뇌 활동성이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즉, 우측 전전두엽 부위가 활성화되면 더 강한 부정적 감정 반응을 보이고,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 및 불안과 관련된 부위의 높은 활동성은 자기보고식 질문지에서 얻은 행동억제체계와도 관련성이 높았다고 한다.

## 2. 사회불안과 행동억제

기존의 연구들(Kashdan & Herbert, 2001; Ollendick & Hirshfeld-Becker, 2002)에서 사회불안장애의 발병원인은 대체로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하나는 주로 생물학적인 유전적 요인에 의해 형성된 행동억제이고, 또 다른 하나는 생애 초기의 부정적 경험, 부모양육행동, 외상적 사건들, 및 인지적 요인 등을 포함하는 심리·사회적 요인들이다. 사회불안에 관련된 수많은 선행 연구들은 사회불안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변인들 중 하나로 불안장애의 기질적 성향인 행동억제를 제안하였다( Chronis-Tuscano et al, 2009; Degnan & Fox, 2007; Neal, Edelmann, & Glachan, 2002; Schwartz, Snidman, & Kagan, 1999; Wittichen, Stein, & Kessler, 1999; 김지원, 하은혜, 조유진, 2009; 오경자, 양윤란, 2003; 장효주, 2009). Schwartz, Snidman, Kagan, (1999)의 장기 종단연구에서는 2세 때 행동억제성향이 높은 것으로 분류되었던 집단(61%)이 12년 후 사회불안을 보고하였던 반면, 행동억제성향이 낮은 집단(27%)만이 사회불안을 보고한 것으로 확인되어 행동억제가 사회불안에 있어 취약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 시절을 회고하여 보고하는 회고적 자기보고식 행동억제척도에서 높은 수준을 보고하였던 고등학생들은 사회공포증으로 진단될 확률이 행동억제기질이 낮은 집단에 비해 4-5배 정도 높은 것으로 연구 결과 나타났으며(Hayward, Killen, Kraemer, & Taylor, 1998), 그 외 다른 연구들(Kagan, Reznick, Clarke, Snidman, & Garcia Coll, 1984; Neal Edelmann & Glachan, 2002)에서도 행동억제기질이 높은 아동이 사회불안으로 될 위험성이 높음이 보고되었다. 국내 연구(오경자, 양윤란, 2003)에 의하면, 행동억제는 사회불안으로 직접적인 경로가 유의하였고 행동억제 수준이 높은 경우, 상황이나 낯선 사람에 대해 심각하게 위축을 나타냈으며, 이후에 내재화 문제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Kagan, 1997), 행동억제가 낮은 집단에 비해 행동억제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사회불안의 발병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Hayward, Killen, Kraemer, & Taylor, 1998). 또한, 임상적인 수준으로 높은 사회불안을 보이는 집단에서 대부분이 회고적 자기보고를 통해 아동기의 행동억제를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Schwartz, Snidman, Kagan, 1999). 이렇듯, 행동억제는 사회불안의 원인 및 발생과정에서 기여하는 주요

한 기질적 요인으로 낯선 대상이나 사람에 노출되는 상황, 스트레스 상황, 도전적 상황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 생리적 반응양식이며(Kagan, 1989; Park, Belsky, Putman, & Cmic, 1997), 아동 · 청소년기의 불안장애와 관련된 일반적 취약요인(Mick & Telch, 1998)으로 확인되었다. 기질적 성향으로서 행동억제는 여러 불안장애에 대한 일반적인 취약 요인으로 알려졌으며, 특히 사회불안장애와 강하게 관련된 것으로 보고되었다(Mick & Telch, 1998; Schwartz, Snidman, & Kagan, 1999).

그러나 행동억제기질이 높다고 해서 전부 사회불안으로 진단되는 것은 아니다. 즉, 사회불안과 행동억제기질의 밀접한 관계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가 청소년기에 이르러 심각한 사회불안을 보이지 않았으며(Schwartz, Snidman, Kagan, 1999), 또한 행동억제기질이 사회불안과 관련해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된다는 결과가 국내 연구를 통해서도 보고된바(오경자, 양윤란, 2003), 단순히 행동억제기질만으로 사회불안의 발생을 설명할 수 없음을 보여주었다. 실제로 행동억제기질은 연령이 증가해도 꾸준히 안정적인 특성(stability)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지만(Kagan, Reznick, Snidman, Gibbons, & Johnson, 1988; Rothbart, 1986), 그러나 최근 연구에서는 행동억제를 생물학적 기질로 타고나더라도 보육의 질, 부모의 양육행동, 교육경험들 간의 상호작용 효과 같은 개인의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그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보고된 바 있다(도현심, 박성연, 윤종희, 정옥분, Rubin, 2003). 몇몇의 학자들은 행동억제 성향이 극단으로 높거나 혹은 낮은 경우에만 안정성(stability)이 나타난다고 했으며, 행동억제 성향이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아동들은 행동억제 성향에 있어 변화가 있음을 보고하여 행동억제의 성향이 연속적이지 않음을 주장하기도 하였다(Engfer, 1993; Park, Belsky, Putman, & Cmic, 1997). 이러한 결과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불안이 발현됨에 있어 행동억제기질의 비중이 감소하고 반복되는 경험이나 교육을 통해 기질적인 취약성이 점차적으로 극복되는 경향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오경자와 양윤란(2003)). 또한, 공식적인 학교경험(교육경험)이 이전에 수줍어했던 아동들에게 낯선 상황을 더 적응적으로, 또는 덜 위협적으로 느끼도록 도와주어 이들의 사회적인 위축행동에 대하여 또래와 교사를

포함한 학교경험(교육경험)이 중재요소로 작용 가능성을 주장한 Pfeifer, Goldsmith, Davison, & Rickman, 2002)의 연구와도 관련지어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 C. 거부민감성

### 1. 거부민감성의 개념

Baumeister & Leary, (1995)에 의하면, 타인에게 받아들여지고 그들과의 애착과 소속감을 느끼고자 하는 욕구는 인간의 중요한 특성이며, 그 자체로도 인간의 매우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동기체계이다. 이러한 욕구 충족은 개인의 발달과 심리적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개인이 행동을 함에 있어 영향을 주는데, 만약 수용 받고자 하는 욕구가 충분히 충족되지 못하거나 좌절된다면 개인의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반응들이 뒤따르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정서적 불편감을 야기하게 된다(Katja et al., 2011). 거부는 누구에게나 스트레스를 유발하기는 하지만 대인관계에서 흔하게 겪을 수 있는 일반적인 인간경험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런 거절 상황에서 매우 다양한 반응을 보이게 된다. 어떤 사람들은 거절을 당할 때, 침착하게 평정을 유지하려 노력하는 반면, 일부 사람들은 자신들의 안녕감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위태롭게 한다. 즉, 거절의 상황이 발생 했을 때 이들은 낙담하거나 화를 내면서 사회적 관계를 회피하는 양상을 보인다(Ethan, Tobias, Kevin, Joy & Geraldine, 2007). 이처럼 거부상황에서 개인마다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을 설명하는 개념이 바로 거부민감성이다(Levy, Ayduk, & Downey, 2001). Feldman & Downey, (1994)가 설명하는 거부 민감성이란 대인 관계 상황에서 거부당할 것이라는 불안한 기대를 가지고 있으며 거부와 관련된 자극에 민감하게 지각하고 거부당하는 것에 과민하게 반응하는 인지·정서적 과정이다. Ayduk, Downey, & Kim, (2001)연구에서 대체로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은 버림받음에 대해 비교적 높은 걱정과 불안을 느끼며 거부될 것이라



는 기대가 더 높다고 할 수 있는 반면, 거부민감성이 낮은 사람들은 대체로 거부를 걱정하지 않으며 타인들에게 받아들여질 것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거부민감성은 사회적으로 위협적인 상황에서 빠르게 반응할 수 있도록 돕는 신경 방어체계이기도 하다(Geraldine, Vivian, Ozlem, Bonita, & Yuichi, 2004). 실질적으로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진심이 없는 사회적인 미소를 좀 더 빠르게 알아차리고 반응한다고 한다(Michael, Steven, Christina, Donald, & Heather, 2008). 그러나 거부민감성이 실제로 거부가 아닌 상황에서도 분별없이 작동되어 거부를 막고자 하는 개인의 노력이 다른 목표를 희생하게 만들기 때문에 부적절한 적응을 하게 된다(류혜라, 박기환, 2014).

## 2. 거부민감성 모델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이 거부가 기대되는 상황에서 보이는 인지, 정서, 행동적 특징은 인지-정서적 성격 체계 이론(Mischel, Cantor, Feldman, 1996)으로 설명할 수 있다. (Mischel et al, 1996; Shoda & Mischel, 1998) 연구에서 기대와 신념, 부호화, 유능성과 자기조절계획, 정서, 목표와 가치 등의 인지-정서 단위(Cognitive-Affective Units: CAUs)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안정적이고 조직적인 성격 구조를 형성하게 되며 외부와 상호작용한다고 가정한다. 개인이 처한 상황적인 기능들을 처리할 때 인지-정서 단위는 서로 작용하여 특정적인 정서, 인지, 잠재적인 행동을 일으킨다고 한다.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은 모호한 단서에도 거부적인 단서로 지각하여, 거부적인 단서를 선택적으로 주의하여 편향적 부호화를 활성화시켜 자신이 거부될 것이라는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거부를 기대하게 된다. 이런 거부에 대해 인지적으로 편향된 부호화는 실제로 거부가 지각되면, 이들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일으켜 상황을 악화시키거나, 혹은 거부를 당하지 않으려고 자기희생적 대처방식인 자기 침묵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게 된다(Ayduk et al., 1996).

애착이론(Bowlby, 1980)의 영향을 받아, 거부민감성 모델은 유아기 때 일

관적이지 않고, 무반응적인 거부적인 양육자로부터 반복해서 거부를 경험한 사람들이 이후의 삶에서 중요한 타인이 자신을 거부할 것이라는 기대를 형성한다고 제안한다. 실제로 불안정 애착과 거부민감성은 강한 관련성을 보이는데, 국내 연구(박희경, 2010; 이복동, 2001)에서도 불안/양가형 애착을 형성한 사람들의 거부민감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다. 중요한 타인에게 거부될 것이라고 예상된 상황에서 방어적인 반응으로 분노 및 불안이 형성될 수 있는데, 이러한 반응은 거부민감성의 핵심이 된다. 거부될 것에 대한 이와 같은 방어적인 반응은 거부에 대한 단서에 대해 과잉 경계를 촉진하게 되고, 사회적 상호작용의 모호한 단서들도 쉽게 상대방의 의도된 거절 신호로 지각하게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거부를 피할 수 있을 경우, 높은 거부민감성을 가진 사람들은 대인관계에서 갈등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더 많이 억제하는 경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거부를 당하지 않기 위해, 상대방의 마음을 거스르지 않으려는 자기 침묵과 같은 자기희생적인 행동을 하거나 필사적인 회피행동을 하게 된다(Impett, Gables, Peplau, 2005). 그러나 이러한 회피행동을 함으로써, 실제적으로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거부당할 것이라는 기대와 신념을 바꿀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한다. 한편, 거부를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이들이 거부 신호에 대한 신체적으로 과잉 각성되어 있어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대안적 방법이나 맥락을 고려하는 등의 좀 더 복잡한 인지적 처리(cool-system)가 힘들어 침착한 대응을 하는 것이 어려워진다(Metcalfe & Mischel, 1999).

따라서 거부적인 단서에 대하여 적대감, 분노, 질투, 지지의 철수 등의 격렬하고 반사적인 정서적-행동적 과잉반응(hot-system)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반사적이고 과잉적인 반응들은 이 후 개인의 삶에서 심리적 불편감과 함께 대인관계에서 문제를 발생시킨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거부할 것이라는 기대는 실제로 자기 충족적 예언을 실현시켜 타인에게 거부를 유발하고 결과적으로 불안한 거부 기대를 강화시키며 악순환을 반복하게 된다(Downey, Freitas, Michealis, & Khouri, 1998).

### 3. 사회불안과 거부민감성

거부에 민감한 개인들은 사회적으로 더 많은 관계를 맺고자 하는 강한 욕구가 있으나, 현대 자신이 지닌 사회적 관계에 대해 과소평가 하는 경향이 있다(London, Downey, Bonica, & Paltin, 2007)고 한다. 이처럼 거부민감성이 높을 경우에 거부를 지각한 이후에 의기소침, 정서적 철회, 질투, 적개심이 포함되기 때문에(Baumeister & Leary, 1995), 상대방과의 관계에 속하는 것과 상대방이 자신을 수용하는 것에 대한 의심과 두려움은 개인의 주관적 안녕감을 감소시키고 타인과의 관계 방향을 파괴적인 방식으로 행동을 유도할 수 있다(Bowlby, 1980). 예를 들자면, 거부당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좀 더 공격적이고, 적대적인 방법으로 행동하며(Downey, Feldman & Ayduk, 2000), 타인과의 관계가 만족스럽지 않으며, 더 문제가 많으면서, 조기에 종결되는 관계를 경험한다(Downey, Feldman, 1996). 또한 거부에 민감한 사람들은 거부를 경험한 이후에 사회불안, 외로움 혹은 우울에 영향을 받기 쉽다고 밝혀졌다(Cooper, Shaver, & Collins, 1998; Simpson, Rholes, & Phillips, 1996).

이렇듯, 거부로 인해 개인이 느끼는 심리적인 불편감은 대인관계 문제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불안 및 사회공포증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사회불안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문제로서, 개인의 사회생활 전반에 커다란 불편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사회불안은 의미상으로 수줍음(Shyness), 대인공포, 사회적 공포증(Social Phobia) 등의 용어들과 거의 같은 맥락에서 사용되고 있다. 즉, 사회불안은 사회적이고 평가적 상황에서 자기의식(Self-Consciousness), 걱정, 정서적 고통 등을 포함하며, 사회적인 상황에서 보일 수 있는 생리적 반응과 행동을 포함해서 사용하기도 한다(이지향, 2006). 일상생활 속에서 개인이 느끼는 사회불안 유발 상황을 살펴보면, 낯선 사람들과 이야기 할 때, 이성과 이야기 할 때, 다른 사람들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할 때, 권위자와 이야기 할 때,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서 이야기 할 때,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할 때 등에서 나타난다(Alden & Crozier, 2001; 정민현, 2003). 사회불안은 개인의 일상생활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며, 사회불안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부모

의 양육방식에 대해 거부적이었으며 정서적 온정이 부족하다고 보고하였고 (Arrindell, Emmelkamp, Monsma, & Brillman, 1973), 부모가 통제적인 태도와 높은 기대 수준을 보였다(허묘연, 오강섭, 이시형, 1998)고 보고하고 있으며, 다른 연구(Allaman, Joyce, & Crandell, 1972; Baumrind, 1976). 이런 연구 결과들로 부모양육방식과 애착유형이 사회불안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연구(Allaman, Joyce, & Crandell, 1972; Baumrind, 1976)에서도 부모의 과잉 보호적이고 거부적인 양육방식은 사회화를 고무시키지 않는 양육 방식이거나 타인의 평가적인 의견에 과도하게 예민하게 만들어, 아동에게 이러한 경험이 부정적인 평가에 대해서 일반화 된 두려움을 이끌게 되어 사회불안과 밀접하게 관련된다고 한다. 또한 관련 선행연구에서는 사회불안 수준의 차이가 애착 유형에 따라 유의미하게 나타났다(김은정, 원호택 (2000); 정민현, 2002)을 보고하였다.

기존 연구들 결과, 불안정 애착 유형으로 거부민감성이 형성될 수 있으며, 이는 대인관계에서 거부민감성을 가진 개인이 사회불안을 더 경험할 수 있음을 가정할 수 있다. 또한, 거부 경험이후에 사회불안이나 외로움 혹은 우울에 영향을 받기가 쉽다(Cooper, Shaver, & Collins, 1998; Simpson, Rholes, & Phillips, 1996)는 연구의 결과에서도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은 사회불안에 취약함을 알 수 있다. 국내의 연구를 살펴보면, 김나영, 조유진, (2009)연구에서 대학생의 거부민감성이 대인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남녀 대학생 모두 거부민감성이 높을 경우 대인불안의 수준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을 구분하여 상관관계를 확인해본 연구(이영아, 2014)에서도, 거부민감성과 사회불안의 하위유형인 수행불안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성차가 발견되었는데, 여자가 남자보다 거부민감성과 수행불안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D. 행동억제와 거부민감성

이상의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행동억제와 거부민감성은 사회불안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행동억제기질을 타고나더라도 모두가

사회불안이 되는 것은 아니고 유전적 요인인 행동억제기질이 사회불안으로 가는 경로에서 또 다른 변인이 작용하는 것을 가정할 수 있다. 행동억제가 생애 초기부터 이후까지 지속되는 만성적인 경로를 보이긴 하지만 모두가 사회불안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이 둘의 관계를 매개하여 더 강화시키거나 약화시키는 변인이 무엇일까? Margot 등(2000, 재인용) 연구에서 아동기 행동억제 성향이 개인의 환경적 요인인 부모양육행동과 결합해서 불안장애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것을 가정하였으며, Kagan(1999)은 기질이 가정환경과 결합함에 따라 두려움과 공포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Rapee(2002)는 기질적 위험요인이 불안장애에 관련됨을 설명하는 연구에서 부모의 과보호적인 양육태도와 억제기질이 관련됨을 언급하였으며, 부모의 과보호적인 양육방식은 억제 기질의 결과인 동시에 아동의 억제 기질을 더욱더 약화시키는 역할을 함을 언급하였다. 이런 연구 결과를 통해 장효주(2009)의 연구에서 청소년의 행동억제기질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부모양육행동의 중재효과를 설명하면서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라서 기질적인 요인이 두려움 및 불안 등의 정신 병리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언급하였다. 또한, 다른 연구(정옥분, 박성연, Rubin, 윤종희, 도현심, 2002; Arcus, Gardner, & Anderson, 1992)에서도 양육행동과 기질이 상호작용하여 똑같은 기질이라도 부모의 양육행동태도에 따라 아동의 행동억제 양상이 변화될 수 있음이 보고되었다. 또한, Davidson(2000)은 행동억제체계와 행동활성화체계에서의 민감성의 차이는 정서 양식(affective style)의 차이를 만들고 이런 정서 양식의 차이는 기질, 성격(Gross, Sutton, & Sniderman, 1988) 및 정신병리에 대한 취약성과 밀접하게 관련된다고 지적한다. 이런 행동억제체계와 행동활성화체계에서 민감성의 차이는 행동억제 성향을 가진 취약한 사람에게서 특정 정서양식(affective style)이 만들어질 수 있고, 특히 행동억제체계와 관련된 정서적-불안정성(neuroticism), 부정적 정서성(negative affectivity)이 발달할 수 있음을 가정할 수 있고, 이는 행동억제 성향과 특정 정서양식(affective style)이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행동억제 기질을 가진 개인의 민감성의 차이가 특정 정서양식의 차이를 만들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회불안의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행동억제에 대한 연구는 다수 수행되었으나, 거부민감성은 사회불안에서 최근에 대두된 변인으로 이복동(2000)의 연구에서는 불안정애착 유형의 사람들이 거부민감성의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그중에서는 불안정/양가형 사람들의 거부민감성이 가장 높게 보고되었다. 불안정 애착유형은 지나친 관심과 거부라는 양육패턴을 반복함으로써 아동에게 또한 어린 시절의 또래와의 상호작용에서 거부경험도 이후의 거부민감성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행동억제 성향을 가진 아동이 부모에게 형성된 거부에 대한 민감성으로 인해 또래관계에서도 거부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 반복적인 거부를 경험한 아동은 사회적 기술을 발달시킬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한번 거부를 경험했던 아이들이 이후에 지속적으로 거부당할 위험이 크며(Hartup,1983), 이는 거부민감성의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류혜라, 2011). 이는 행동억제 성향을 가진 아동이 또래로부터 거부 경험을 많이 경험할 것이고 이는 아동이 이후의 대인관계에서 거부에 대한 민감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행동억제와 관련해 이미정 (1998)연구에서 3세 여아의 행동억제와 그 관련변인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어머니의 양육행동(아동의 행동 억제에 대한 민감성, 예의범절 강조)과 아버지의 양육행동(아동의 행동 억제에 대한 민감성, 예의범절 강조, 과잉보호, 지시/통제, 거부/적대)을 선행 연구를 기초로 연구자가 구성하여 알아본 결과, 아버지가 거부/적대적인 양육행동을 많이 할수록 3세 여아의 행동 억제가 증가하였다. 또한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행동억제/활성화 성향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연구(민성혜, 김지현, 정지나, 2007)에서 어머니의 행동 억제 성향은 부정적 정서를 매개로 하여 과잉보호, 지시/통제, 거부/적대에 영향을 주었고, 어머니의 활성화 성향은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를 매개로 하여 민감성과 애정성에 영향을 주었다. 이는 행동억제 성향을 가진 어머니가 거부/적대적인 양육행동을 많이 할 것이고 이는 아동에게 대인관계에서 거부/적대적인 신호에 민감해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사회불안증상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주로 환경적인 요인이나, 부모의 양육태도, 애착의 질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것이 많았다. 또한 사회불안의 유지와 발달에 있어 통합적인 설명을 하는 Clark과 Wells(1995)의 인지모델에서는 사회적인 상황에서 보일

수 있는 비합리적인 신념, 주의전환, 안전행동을 강조하고 있다. 인지모델에서 설명하는 사회공포증인 사람들의 비합리적인 신념은 사회적 상황에서 자신이 수용 받지 못하는 부적절한 행동을 할 것이라는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즉, 자신의 행동이 일련의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믿음을 지니는 것으로, 일단 사회적 상황을 이러한 방식으로 인식하고 받아들이면 반사적이고 자동적인 불안 프로그램이 작동하게 된다(박은희, 윤혜영, 권정혜, 2011). 인지모델에서 설명하고 있는 자신이 수용 받지 못할 것이라는 비합리적인 신념은 Feldman과 Downey(1994)가 말한 대인 관계 상황에서 거부당할 것이라는 불안한 기대를 가지고 있으며 거부와 관련된 자극에 민감하게 지각하고 거부당하는 것에 과민하게 반응하는 인지-정서적 과정인 거부민감성과 일맥상통 한다고 보여진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행동억제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인지-정서적 요인인 거부민감성이 이들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인지적 입장에서 인지적인 변인들은 사회불안을 연구하고 치료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며, 조용래, 김은정, 원호택 (1997) 연구에서 인지적인 변인에 대한 국외 상황을 설명하면서, 국외에서는 사회불안 혹은 사회공포증에 대해 인지적 접근들이 1980년대 이후 극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그에 반해서 국내에서는 일반화된 불안증과 우울증의 경우와는 달리 사회불안 혹은 사회공포증을 주제로 한 인지적인 접근을 한 연구들이 아직 소수에 불과한 것 같다(신민섭, 소준현, 홍강의, 1996; 정미순, 이봉건, 1997; 조용래, 원호택, 1997; 최정훈, 이정윤, 1994)고 지적하였다. 특히, 사회불안의 인지적 내용을 평가하기 위해 주로 사용되고 있는 도구로 ‘비합리적 신념 검사’(신현균, 원호택, 1991; 최정훈, 이정윤, 1994; Jones, 1996) 및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척도’(이정윤, 1996; Leary, 1983; Watson & Friend, 1996) 같이 인지적인 특질을 측정하는 검사들이 있는데,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사회불안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흔히 가질 수 있는 인지적인 경향성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이것은 사회불안 연구에 있어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주요 변인으로 작용하여 관련됨을 시사하고,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사회불안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김민선, 서영석, 2009; 조용래, 원호택,

1999; Arnkoff & Glass, 1989; Clark & Wells, 1995)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즉,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하고, 자기 자신이 항상 완벽해야 한다고 믿기 때문에 (Deffenbacher, Zwemer, Whiman, Hill, & Sloan, 1986, 재인용) 자신이 어떤 상황이나 관계에서 불안해지는 것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을 하는 경향을 나타낸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한기연(1993, 재인용)은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타인의 기대, 평가, 인정 등을 추구하기 때문에 정서적 문제와 관련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였다. 즉,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기대하는 수행을 자신의 개인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므로,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대해 지나치게 민감하며, 다른 사람들을 비지지적이라 생각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사회적 상황에서 불안을 겪을 수 있는 것과 연결되는 것으로,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성향이 높은 사람들에게서 보일 수 있는 비합리적인 신념이 다른 사람의 기대, 평가, 인정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들은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에 민감해지고 이는 대인관계에서 거부되지 않고 수용되어야 한다는 개인의 부정적인 인지편향의 거부민감성과 유사한 개념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또한, 행동억제와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개인의 인지적 평가 경향성이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이는 사회불안을 경험하는 개인에게 치료적 개입을 위한 특정한 변인을 확인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행동억제와 사회불안의 관계를 거부민감성이 매개할 것이라 가정하고 행동억제기질이 부모양육태도로 인해 거부민감성을 발달시키고 행동억제는 거부민감성에 선행 변인으로 거부민감성은 사회불안의 개인의 인지-정서적 변인으로 사회불안의 발생 및 유지에 있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구체적인 발생 경로를 살펴보고자 한다.



### III.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이 장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행동억제와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모형과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 A. 연구모형

본 연구의 기본 가설은 행동억제가 거부민감성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측정오차를 통제할 수 있고, 매개변수의 사용이 용이하며, 이론모형에 대한 통계적 평가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진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해 검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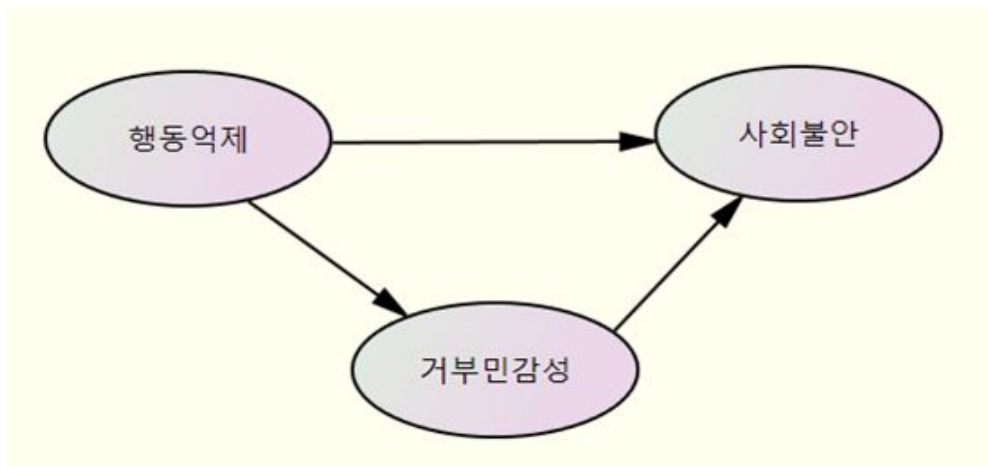


그림 1. 기본 가설 모형

#### B. 연구가설

연구문제 1. 행동억제, 사회불안, 거부민감성은 서로 관련이 있는가?

가설 1-1. 행동억제는 사회불안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거부민감성은 사회불안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문제 2. 행동억제와 사회불안의 관계를 거부민감성이 매개하는가?

가설 2-1. 연구모형이 양호한 적합도를 나타낼 것이다.

가설 2-2. 행동억제와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은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 IV. 연구방법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특성 및 연구절차와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 및 자료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 A. 연구대상

본 연구는 광주·전남 소재 대학교에서 대학생 34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연구자가 수업시간에 참여하여 설문에 대해 설명하고 직접 설문지를 배부하고 수거하거나 담당 교수와 조교를 통해 배부 및 회수되었다. 이 중 무성의하게 응답하였거나 무응답 문항(결측치)이 많다고 판명된 40부를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렇게 해서 최종 분석에 포함된 참가자들은 총 300명(남자 182명, 여자 119명)이었으며, 이들의 평균연령은 21.16세(SD=2.07세)였다. 표본의 크기가 작으면 추정오차(estimation error)가 커지기 때문에 추정된 미지수의 값을 신뢰할 수 없다. 표본 크기의 절대적인 기준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모형에서 추정되는 미지수의 5-10배 정도의 표본이 필요하며(Bentler & Chou, 1987), 적어도 150명 이상의 표본이 필요하다(Anderson & Gerbing, 1988, 재인용). 그러므로 본 연구에 사용된 표본의 크기는 300명으로 적당하다고 판단된다.

### B. 연구절차

본 조사에 앞서 2014년 09월 03일 광주에 소재한 대학교 대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과정을 통해 질문지 문항의 이해도 및 답변의 원활함을 확인하고 예비조사에 사용된 질문지는 수정 없이 본 조사에 사용하였다. 본 조사는 2014년 09월 11일부터 10월 14일까지 광주, 전남에 소재하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3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질문지는 연구자의 설명 후 배부 및 회수되거나 담당 교수를 통해 배부 및 회수되었다. 전체 질문에 대한 응답 시간은 약 15-3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 C.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자료 수집을 위해 사용한 측정도구는 다음과 같다. 각 측정도구의 구성된 문항은 부록 1~4에 제시하였다.

### 1. 한국판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척도(Korean-Social Interaction Anxiety Scale: K-SIAS)

이 척도는 사회공포증척도(SPS)와 함께 실시하도록 구성된 쌍 척도로서, 전체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두 명이나 여러 명이 함께 대화를 하는 등의 사회적인 상황에서 상호작용에 대한 두려움을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된다. 이 척도는 Mattick과 Clark(1998)이 제작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김향숙(2001)이 번안하여 구성한 19문항에 최병휘(2006)가 번안한 한 문항을 추가하여 사용하였다. 리커트 척도로 0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점(매우 그렇다)까지 구성되어 있고, 역 채점 문항(3개의 긍정문으로 구성)을 처리한 후에 모든 문항의 점수를 합하여 총점이 나온다. 척도에서 높은 점수는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의 수준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점수 범위는 0점에서 80점으로 산출된다.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척도(SIAS)는 선행 연구들에서 내적 일관성이 높았고, 타당도 및 검사-재검사 신뢰도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Mattick & Clarke, 1998; Orsillo, 2001). 김소정, 윤혜영, 권정혜, 2013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는 .88였으며, 문항 총점 간 상관은 -.57에서 .82 범위였다. 최미미(2008)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는 .92였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는 .88였다.

### 2. 한국판 사회공포증척도(Korean-Social Phobia Scale: K-SPS)

이 척도는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척도(SIAS)와 함께 실시하도록 구성된 쌍 척도로서, 전체 20문항으로 구성된다. 다른 사람들과 식사를 하는 상황, 대중들 앞에서 발표를 해야 하는 상황, 관심의 초점이 되는 상황 등의 수행 상황에 대한 두려움을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된다. 이 척도는 Mattick과 Clarke(1998)가 제작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김향숙(2001)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0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점(매우 그렇다)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로서 총점의 범위는 0점에서 80점까지이다. 높은 점수는 수행 불안 수준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공포증 척도(SPS)는 선행 연구들에서 내적 일관성이 높고, 신뢰도와 타당도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Mattick & Clarke, 1998; Orsillo, 2001). 김소정, 윤혜영, 권정혜, 2013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는 .94였으며, 문항 총점 간 상관은 .49에서 .81 범위였다. 최미미(2008)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는 .93였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는 .87였다.

### 3. 한국판 자기보고식 회고적 행동억제 척도(Korean version of Retrospective Self-Report of Inhibition, K-RSRI)

이 척도는 행동억제기질을 측정하기 위하여 Reznick, Hegerman, Kaufman, Woods, & Jacobs, (1992)의 자기보고식 회고적(retrospective) 행동억제 척도를 우리말로 오경자와 양윤란(2003)이 번역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부모 보고가 아닌 자기보고식이라 기억상의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험 여부 보다는 경험의 정도 및 빈도에 따라 초등 저학년(1-3학년) 시절의 행동억제를 5점 척도 상에서 평정하도록 제작하였다.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 시절과 관련된 행동억제와 관련 있는 5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체문항은 30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5가지 영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역은 일반적인 질병 및 알레르거나 변비 혹은 수면곤란과 같은 특정 문제와 관련이 있는 교감신경계 활동에 관한 것이다. 둘째 영역은 학교나 단체 활동을 두려워하는 것과 사물, 상황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한 두려움, 어둠에 대한 두려움이나 동물을 무서워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세 번

째 영역은 장난감이나 담요 등이 필요했는지, 방중에 불을 켜 놓는 것에 대한 질문으로 두려움을 감소시키기 위한 행동들에 대한 질문이다. 네 번째로는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것으로, 남의 집에 가서 잤는지, 혹은 처음 먹어보는 음식을 먹었는지, 남의 집에 가서 잤는가와 같은 질문으로,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에 관한 것이다. 다섯 번째 영역은 저조한 사회적 기술에 관한 질문으로, 또래와의 관계에 관한 것들, 학교에서의 놀이나 방과 후 활동에 관한 것들로, 저조한 사회적 기술에 관한 질문들이다.

자기보고식 회고적 행동억제 척도(RSRI)는 원래 총 30개 문항으로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1-3학년) 기준으로 행동억제기질에 대한 해당여부를 응답하도록 구성된 척도로서, Reznick 등(1992)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요인분석 결과에서 2개의 요인구조가 보고되었다. 첫 번째는 학교 및 그 밖의 사회적 상황에 관련된 것이었고, 두 번째는 질병과 두려움에 관련된 내용이었다. 반면에 오경자와 양유란(2003)의 연구에서 자기보고식 회고적 행동억제 척도(RSRI)의 요인 구조는 신체화, 수줍음, 사회적 회피, 단순 공포, 분리불안 5가지 요인으로 도출되었고, 또 다른 연구(김지원, 하은혜, 조유진, 2009)에서 행동억제가 일반적으로 하나의 단일한 구성개념으로 가정된다는 것에 따라 5개 하위요인구조에 포함된 총 30개의 문항 점수를 합하여 행동억제기질로 측정하였다. 오경자와 양유란(2003)의 연구에서 본 척도에 대한 자료를 요인 분석한 결과, 신체화(문항1,2,3), 수줍음(문항15,17,18,19,24,29), 사회적 회피(문항20,21,22,23,25,28,30), 단순공포(문항5,8,9), 분리불안(문항10,11,12) 총 5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리커트 5점 척도로 1점(전혀 아니다)에서 5점(항상 그렇다)로 평정되고, 총점의 범위는 30점에서 150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행동억제기질이 높음을 의미한다. Reznick 등(1992)이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내적합치도가 Cronbach's $\alpha$ 는 .79였고, 임상집단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Cronbach's $\alpha$ 는 .91이었다. (김지원, 하은혜, 조유진, 2009)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 계수 Cronbach  $\alpha$  값은 .78로 나타났다. 최미미 (2008)연구에서 자료를 통해 산출한 K-RSRI 전체척도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 )는 .81이었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 )는 .93였다.

#### 4. 거부민감성 질문지(The Rejection Sensitivity Questionnaire)

이 척도는 거부민감성을 측정하기 위해 Downey와 Feldman(1996)이 개발한 거부민감성 질문지(The Rejection Sensitivity Questionnaire)를 이복동(2000)이 번안하여 타당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검사지에서는 성인 초기에 개인의 일상생활에서 부모, 친구, 잠재적 친구, 연인, 잠재적 연인, 교수 등의 중요한 타인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18가지의 상황을 제시한다. 각각의 상황에서 자신이 타인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할 때, 거부될까봐 염려되거나 불안한가의 여부(거부 예상)와 상대방이 그 요구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예상하는가의 여부(수용 예상)를 각각 6점 Likert 척도 상에서 평정한다. 거부민감성 점수는 각각의 상황에 대한 거부 불안 점수와 예상기대점수의 곱 점수를 합하여 18로 나눈 값이다. Downey와 Feldman(1996)이 보고한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 )는 .83이었다. 한국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복동(2000) 연구에서는 .87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 )는 .86였다.

### D. 자료 분석

#### 1.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분석을 위해 IBM SPSS Statistics 18.0과 Amos 18.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분석을 적용하였다.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은 이론적 배경에 근거하여 구성된 잠재변인들 간의 직·간접적인 관계의 추정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는 데 적합하기 때문이다(Schumacker & Lomax, 1996). 또한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은 잠재변인이 두 개 이상의 측정변인을 포함한 경우에 측정오차를 제거한 상태에서 잠재변인 간 관계를 확인할 수 있어 예언변인과 결과변인의 관계에서 매개변인의 효과를 검증하는 데 유용한 방법이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척도의 신뢰도를 Cronbach's  $\alpha$  를 이용하여 판단하였다.

둘째, 연구 대상들의 인구학적 변인, 측정변인들의 기술통계량을 분석하였다.

셋째, 구조방정식모형에서는 각 변인들의 정상분포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왜곡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 정상분포조건(편포도 < 2, 첨도 < 4)을 고려했을 때(Hong, Malik, & Lee, 2003),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인들의 편포도와 첨도는 구조방정식모형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정상분포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다.

넷째, 상호작용불안척도, 사회적공포척도의 경우 기존 연구에서 제시한 하위 요인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하고, 행동억제 척도와 거부민감성 척도의 경우는 탐색적 요인분석을 확인요인분석 전 선행실시 하였다.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요인추출방법, 요인의 수 결정, 요인 회전 방법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 300개 이상의 표본 크기는 우수한(good) 것으로 보고 있다(Comery & Lee, 1992; Tabachnick & Fidell, 1996). 표본의 크기뿐만 아니라 공통성(communality)의 크기와 적절한 요인 구조 또한 신뢰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Hogarty, Hines, Kromery, Ferron, & Mumford, 2005). 탐색적 요인 분석은 자료 축소뿐만 아니라 변수들이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요인(common factor)을 추출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Snook & Gorsuch, 1989). 적합도 지수는 표본 크기에 민감하지 않고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한 동시에 명확한 해석 기준이 확립된 적합도 지수가 바람직한 적합도 지수이다(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그러나 적합도 지수가 표본크기에 민감하지 않고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더라도 명확한 해석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적합도는 부적절하다(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이 기준을 근거로 구조모형의 해석에 적합한 GFI, AGFI, NFI, RESMA의 적합도 지수로 모형을 선택하였다. 브라운과 쿠택(Browne & Cudeck, 1993)에 따르면 RESMA 값은 .05 이하면 좋은 적합도 .05에서 .08사이면 적합한 적합도이며 .10 이상이면 부적절한 적합도이다.

넷째, 행동억제, 거부민감성, 사회불안에 대한 잠재변인과 해당 측정 변수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확인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측정모형을 검증하였다.



다섯째, 앞에서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측정모형을 기본으로 구조모형을 설정하였다.

여섯째, 본 모형에서 행동억제와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최종 구조모형 분석 시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method) 을 이용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 V. 연구결과

사회불안, 행동억제, 거부민감성에 속하는 모든 측정변인의 기술통계 값과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행동억제와 사회불안의 관계를 거부민감성이 매개하는 관계모형의 적합도와 행동억제, 사회불안,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 A. 척도의 신뢰도

신뢰도란 일관성이 높은 측정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정도로서, 측정결과에 오차가 들어있지 않은 정도를 의미한다. Nunnally (1978)에 의하면, 신뢰도는 척도의 타당도를 주장하기 위한 필요조건으로 척도에 대한 신뢰도의 평가 없이는 어떤 측정도구들도 타당도를 가진 척도라고 주장할 수 없다고 하였다. 신뢰도를 검증하는 방법에는 반복측정 신뢰도, 여러 가지 측정도구를 이용한 신뢰도, 크론바흐 알파 계수 등이 있다. 여러 가지 측정 항목들 중 크론바흐 알파 계수(Cronbach's  $\alpha$ )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 수치를 신뢰도 계수로 사용하였다. 사회과학에서 신뢰성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이, 일반적으로 0.6 이상을 측정지표의 신뢰성에 커다란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였으나, 최근 0.8 이상을 기준으로 보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의 추세를 감안하여 0.7 이상을 기준으로 신뢰성을 평가하기로 한다. 본 연구의 경우, 기존 연구에서 개발된 설문을 이용하였으므로 0.7을 최저 허용치로 사용하였다. 아래 표1에서와 같이 4개의 설문척도의 Cronbach's  $\alpha$  값이 전부 0.8 이상이므로, 매우 신뢰도가 높은 설문이라고 할 수 있다.

표 1. 척도의 신뢰도(N=300)

척도	Cronbach's $\alpha$
한국판 자기보고식 회고적 행동억제척도 (K-RSRI)	.93
거부민감성 질문지 (RSQ)	.86
상호작용불안척도 (SIAS)	.88
사회적공포척도 (SPS)	.87

\*P > .05

## B.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변인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위해 기술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해당 변인으로는 성별, 연령, 학년, 전공으로 결과는 아래 표2와 같다. 남학생이 182(60.7%)명, 여학생이 118(39.3%)명으로 학년별로 살펴보면, 1학년이 100(33.3%)명, 2학년이 86(28.7%)명, 3학년이 80(26.7%), 4학년이 34(11.3%)명으로 나타났다.

표 2.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 (N =300)

변인	구분	N (%)
성별	남	182(60.7)
	여	118(39.3)
연령	18세-20세	137(45.7)
	21세-25세	155(51.6)
	26세-27세	8(2.7)
	1학년	100(33.3)
학년	2학년	86(28.7)
	3학년	80(26.7)
	4학년	34(11.3)
	인문사회계열	87(29.0)
전공	예체능계열	58(19.3)
	이공계열	153(51.0)
	기타	2(0.7)

### C. 변인별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각 변인들 간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와 첨도는 아래 표3과 같다. 구조방정식모형에서는 결과가 왜곡되지 않기 위해 각 변인들의 정상분포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Hong, Malik, & Lee, (2003) 연구에 의하면, 구조방정식모형에서는 각 변인들의 정상분포조건(편포도 < 2, 첨도 <4)을 고려해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인들의 편포도와 첨도는 구조방정식모형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정상분포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다.

표 3. 변인별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N=300)

잠재변인	측정변인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행동억제	행동억제1	3.18	0.79	0.45	0.61
	행동억제2	3.05	0.70	0.02	0.01
	행동억제3	2.57	0.74	1.56	2.57
	행동억제4	3.54	0.68	1.51	2.47
	행동억제5	3.73	1.08	1.54	1.51
	행동억제6	2.54	0.73	1.38	1.11
	행동억제7	3.12	0.86	0.85	0.38
거부민감성	거부민감성1	2.72	0.42	0.1	1.86
	거부민감성2	2.74	0.42	0.4	1.42
	거부민감성3	3.66	0.42	0.26	2.02
	거부민감성4	2.8	0.40	0.13	1.27
상호작용불안	상호작용불안	3.36	0.56	0.2	0.09
사회적공포	사회적공포	2.93	0.67	0.59	0.3

### D. 탐색적 요인분석

탐색적 요인 분석 결과, 18개 문항으로 구성된 거부민감성 척도에 대하여 요인분석 하여 총 요인 4개를 추출하였으며, 이를 각각 거부민감성1~거부민

감성4로 명명하였다. 추출된 요인의 설명력은 각각 37.711%, 21.383%, 13.298%, 7.052%로 전체 79.444%로 나타났다. 요인분석 수행을 위한 가정의 검증은 유의수준  $p < 0.05$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요인분석의 수행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각 요인별 요인적재량은 아래 표 4와 같다. 30개 문항으로 구성된 행동억제척도에 대하여 요인 분석하여 총 요인 7개를 추출하였으며, 이를 각각 행동억제1~행동억제7로 명명하였다. 추출된 요인의 설명력은 각각 30.823%, 10.522%, 7.044%, 7.012%, 6.375%, 6.092%, 5.675%, 전체 73.543%로 나타났다. 요인분석 결과, 유의수준  $p < 0.05$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요인분석의 수행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각 요인별 요인적재량은 아래 표 5와 같다.

표 4. 거부민감성 척도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문항번호	요인			
	거부민감성1	거부민감성2	거부민감성3	거부민감성4
RSQ11	0.763	-0.037	0.147	0.22
RSQ13	0.707	0.104	-0.123	0.333
RSQ10	0.7	0.122	0.333	0.152
RSQ6	0.627	0.127	0.35	-0.023
RSQ9	0.604	0.247	0.123	0.205
RSQ1	-0.09	0.792	0.247	0.295
RSQ8	0.165	0.75	-0.019	0.264
RSQ7	0.229	0.696	0.226	0.026
RSQ17	0.107	0.085	0.811	0.218
RSQ18	0.279	0.054	0.719	0.094
RSQ3	0.096	0.216	0.698	-0.097
RSQ4	0.129	0.214	0.668	0.122
RSQ2	0.257	0.372	0.523	0.087
RSQ5	0.13	0.328	0.51	0.099
RSQ12	0.069	0.163	0.085	0.813
RSQ15	0.3	0.178	0.1	0.688
RSQ16	-0.023	0.018	0.48	0.558
RSQ14	0.261	0.116	0.081	0.509

본 연구에서는 상호작용불안척도, 사회적공포척도의 경우 기존 연구에서 제시한 하위요인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하고, 행동억제 척도와 거부민감성 척

도의 경우만 탐색적 요인분석을 확인요인분석 전 선행 실시 하였다. 행동억제 척도와 거부민감성척도의 경우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기 전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실시한 이유는 기존의 연구에 근거하였다. 행동억제척도(RSRI)는 Reznick 등(1992)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요인분석결과, 2개의 요인구조가 보고된바 있고, 반면 오경자와 양유란(2003)의 연구에서 RSRI의 요인 구조는 사회적 회피, 수줍음, 신체화, 단순 공포, 분리불안 5가지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김지원, 하은혜, 조유진, (2009)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행동억제가 하나의 단일구성개념으로 가정된다는 것에 따라 5개 하위요인구조에 포함된 문항 총 30개의 점수를 합하여 이를 행동억제기질로 측정하였다. 거부민감성(RSQ) 척도는 기존 연구자들이 하나의 단일구성개념으로 가정하고 연구를 하였다. 이에 본 연구자는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전체 문항들이 몇 개의 요인에 의해 설명되는지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과 사각회전(oblique rotation)을 이용한 일련의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최대우도법에서 카이제곱과 적합도를 통해 요인의 수를 결정할 경우, 적합도 지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시점이 요인의 수를 결정하는 시점이다(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본 연구의 행동억제척도(RSRI)는 RMAEA 값을 보았을 때, 요인의 수가 증가할수록 그 값이 떨어지지만 7 요인모형부터는 REMSA 값의 변화가 .01보다 작게 된다. 통상적으로 모형의 적합도 차이가 .01 이하면 모형 적합도의 변화가 거의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요인 수 증가에 따른 모형의 변화가 없다면 적은 수의 요인으로 모형을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기에 본 연구에서는 7 요인 모형 구조를 최적으로 판단하였다. 거부민감성(RSQ) 척도는 4 요인 모형 구조를 선택하였다. 탐색적 요인 분석의 추정 방법 중, 현재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은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과 주축요인추출법(principle axis factoring)이다. 본 연구에서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였는데, 수집된 자료가 표본이라는 가정과 적당한 표본 크기, 요인의 개수에 대해 통계적인 검증이 가능하다(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요인 회전의 방법에는 회전하는 축이 직각을 유지하는 직각회전과 회전축을 직각 이외의 각으로 회전하는 사각회전이 있다. 연구자는 사각회전을 사용하였는데, 사각회전(oblique rotation)은 요인 간에

상관이 있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내재된 요인들 역시 완전히 독립적이지 않다고 본다. 요인들이 실제로 서로 독립적이라면 사각회전을 사용하더라도 직각회전의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그 반대는 성립하지 않는다(이순목, 1995). 따라서 직각회전은 사각회전의 특별한 한 방법으로 볼 수 있으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사각회전을 사용해야 한다(홍세희, 1999).

**표 5. 행동역제 척도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문항번호	요인						
	행동역제 1	행동역제 2	행동역제 3	행동역제 4	행동역제 5	행동역제 6	행동역제 7
RSRI18	0.792	0.118	-0.06	0.091	0.006	0.175	0.069
RSRI17	0.791	-0.022	-0.02	0.057	0.058	0.06	0.014
RSRI24	0.745	0.128	0.073	-0.017	0.01	-0.063	0.089
RSRI15	0.624	0.082	0.044	0.058	0.142	0.199	0.272
RSRI19	0.607	0.166	0.119	0.435	0.127	0.111	-0.173
RSRI16	0.486	0.081	0.274	0.287	0.171	0.095	-0.06
RSRI23	0.082	0.766	-0.017	0.17	-0.069	0.129	0.145
RSRI21	0.11	0.72	0.06	0.067	-0.034	0.194	0.031
RSRI22	-0.093	0.715	-0.027	0.236	-0.027	0.344	0.142
RSRI25	0.092	0.651	0.12	-0.111	0.069	-0.101	-0.07
RSRI28	0.191	0.644	0.053	-0.043	-0.001	-0.165	-0.183
RSRI20	0.219	0.512	-0.09	-0.158	-0.106	-0.136	0.18
RSRI13	-0.248	0.492	-0.205	0.128	0.076	0.058	-0.022
RSRI30	0.216	0.48	0.277	-0.051	0.042	-0.21	-0.166
RSRI14	-0.21	0.465	0.349	-0.286	0.222	-0.014	-0.088
RSRI2	0.04	-0.031	0.769	0.148	0.055	0.112	0.035
RSRI1	-0.057	0.108	0.754	0.152	0	0.155	-0.022
RSRI3	0.201	0.016	0.649	0.143	0.135	0.069	0.247
RSRI27	0.143	-0.042	0.174	0.774	0.189	0.221	0.046
RSRI6	-0.032	0.024	0.185	0.724	0.11	0.192	0.146
RSRI4	0.205	0.131	0.126	0.625	-0.016	0.086	0.268
RSRI26	0.123	-0.003	0.174	0.59	0.483	-0.125	0.057
RSRI9	0.149	0.015	0.046	0.056	0.856	0.21	0.149
RSRI8	0.07	-0.02	0.037	0.154	0.848	0.189	0.103
RSRI11	0.153	0.063	0.175	0.049	0.18	0.727	0.182
RSRI12	0.268	-0.022	0.217	0.098	0.178	0.631	-0.131
RSRI10	0.305	0.03	0.239	0.24	0.198	0.59	0.015
RSRI5	0.226	0.04	0.08	0.356	0.18	0.164	0.706
RSRI29	0.435	-0.01	0.065	-0.141	0.107	0.127	0.654
RSRI7	-0.079	-0.051	0.216	0.256	0.301	-0.14	0.647

주. 요인추출 방법: 최대우도법. 회전 방법: 사각회전.

### E. 측정모형분석

본 연구에서는 행동억제, 거부민감성, 사회불안에 대한 잠재변인과 해당 측정변수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위 그림 2와 같이 확인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측정모형을 검증하였다. 측정모형 검증결과, 측정변인의 요인부하량이 0.5 이상이면 좋은 값으로 집중 타당도가 있다고 판단하는 데, 행동억제 도에서 일부 요인부하량이 적합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해당 모형의 모형적합도 등을 같이 비교하여 판단한다. 모형추정치는 모형을 추정할 때 가장 많이 이용되는 최대우도법을 이용해 추정하였다. S.E. (Standard Error)는 표준오차의 추정치로 모수추정치의 정확도를 측정한 것이다. 이 값이 작을수록 모수추정치가 정확하며, 클수록 정확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C.R.(Critical Ratio)는 임계치로 모수추정치인 Estimate를 표준오차의 추정치인 S.E. 로 나눈 값이다. 비표준화 회귀계수의 경우, 아래 표 6에서 나타나듯 p값을 기준0.05보다 작으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고 볼 수 있는데, 추정된 자유모수들은 통계적 유의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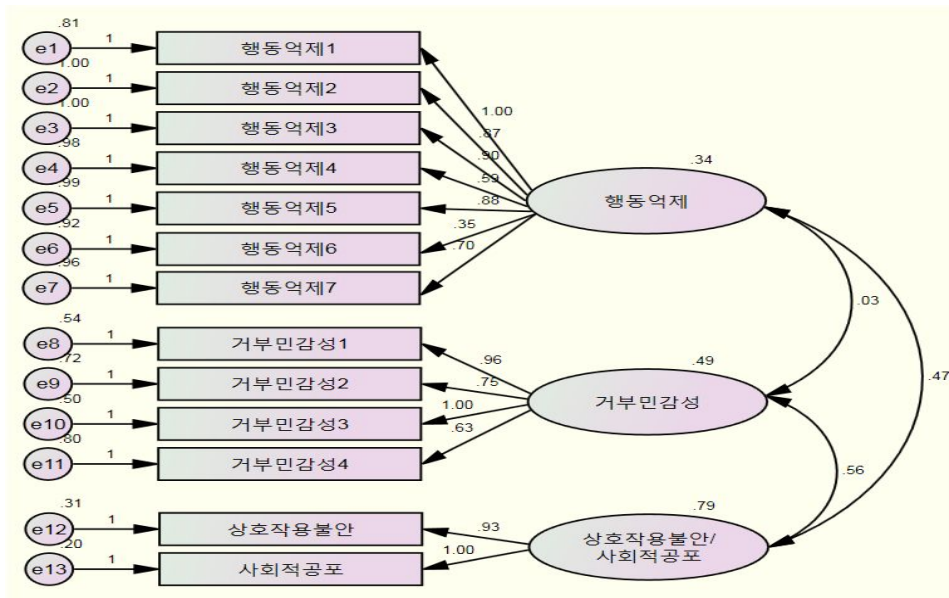


그림 2. 측정모형



**표 6. 측정모형의 비표준화 회귀계수**

			Estimate	S.E.	C.R.	P
행동억제7	<---	행동억제	0.066	0.057	1.962	0.004
행동억제6	<---	행동억제	0.031	0.056	0.549	0.009
행동억제5	<---	행동억제	0.08	0.057	1.928	0.003
행동억제4	<---	행동억제	0.041	0.056	0.739	0.046
행동억제3	<---	행동억제	0.481	0.093	5.186	***
행동억제2	<---	행동억제	0.137	0.06	2.274	0.003
행동억제1	<---	행동억제	1			
거부민감성4	<---	거부민감성	0.641	0.108	5.909	***
거부민감성3	<---	거부민감성	1			
거부민감성2	<---	거부민감성	0.761	0.113	6.735	***
거부민감성1	<---	거부민감성	0.995	0.133	7.48	***
사회적공포	<---	상호작용불안 /사회적공포	1			
상호작용 불안	<---	상호작용불안 /사회적공포	0.985	0.058	17.018	***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표 7>에서 제시한 바와 같다.  $\chi^2$ 의 경우 p가 0.05 이상이면 귀무가설을 기각하게 되지만, 다른 적합도 지수를 고려하여 판단한다. GFI의 경우, 0.9, AGFI의 경우 0.85 이상으로 매우 우수한 것으로 판단되며, NFI는 일반적으로 0.9 이상을 우수하다고 판단하는 데 약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RMSEA의 경우 0.08 이하로 양호라고 판단된다.

**표 7.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chi^2$	df	p	GFI	AGFI	NFI	RMSEA
133.469	62	0	0.938	0.909	0.837	0.062

## F. 구조모형분석

앞에서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측정모형을 기본으로 구조모형을 아래 그림 3과 같이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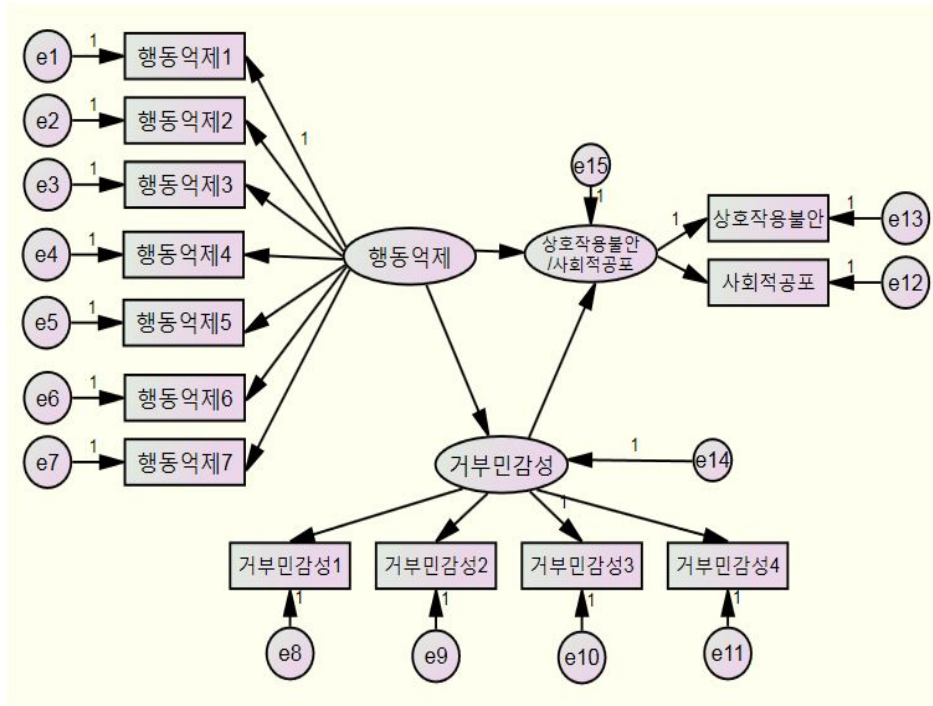


그림 3. 구조모형

아래 표 8에서와 같이 구조모형의 회귀계수로 보았을 때, 모든 경로의 부호는 가설화된 방향과 같게 나타났으며, C.R 값이  $\pm 1.965$ 보다 크고, p값은 0.05 이하로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화 적재치는 0.5 이상이어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구조모형의 회귀계수

			Estimate	S.E.	C.R.	P
거부민감성	<---	행동억제	1.743	1.432	1.217	0.004
상호작용불안	<---	행동억제	1.269	0.44	2.884	0.027
/사회적공포						
상호작용불안	<---	거부민감성	2.332	1.826	1.277	0.022
/사회적공포						
행동억제7	<---	행동억제	0.071	0.031	2.29	0.005
행동억제6		행동억제	0.615	0.088	6.974	***
행동억제5	<---	행동억제	0.175	0.071	2.465	0.008
행동억제4		행동억제	0.686	0.086	7.929	0.005
행동억제3	<---	행동억제	0.504	0.088	5.727	***
행동억제2	<---	행동억제	0.567	0.29	1.955	0.008
행동억제1	<---	행동억제	1			
거부민감성4	<---	거부민감성	0.653	0.109	5.991	***
거부민감성3	<---	거부민감성	1			
거부민감성2	<---	거부민감성	0.777	0.114	6.818	***
거부민감성1	<---	거부민감성	0.992	0.132	7.527	***
		상호작용불안				
사회적공포	<---		1			
		/사회적공포				
상호작용	<---	상호작용불안	0.942	0.055	17.127	***
불안		/사회적공포				

해당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 중 많은 연구자들이 사용하는 적합도 지수를 요약하면, 아래 표 9와 같다.  $\chi^2$ 의 경우 p가 0.000 이지만, 다른 적합도 지수를 고려하여 판단하면, GFI의 경우, 0.9, AGFI 의 경우 0.85 이상으로 매우 우수한 것으로 판단되며, NFI는 일반적으로 0.90이상을 우수하다고 판단하는 데 약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RMSEA 의 경우 0.08 이하로 어느 정도 우수로 판단된다. 표 9에 나타난 바와 같이 구조 모형의 적합도가 만족할 만한 수준인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구조모형을 최종 구조 모형으로 선택하였다.

표 9.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

$\chi^2$	df	p	GFI	AGFI	NFI	RMSEA
85.965	39	0	0.95	0.916	0.897	0.063

## G.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표 10.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변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	1												
2	.54	1											
3	.26**	.10*	1										
4	.23**	.25**	.34**	1									
5	.20**	.14**	.28*	.37**	1								
6	.28	.38**	.35**	.20**	.27**	1							
7	.58**	.68*	.08	.23**	.06**	.07	1						
8	.49**	.31**	.05	.15**	.03	.14*	.003*	1					
9	.36**	.22	.14**	.08	.30**	.24**	.11**	.02**	1				
10	.32	.38**	.04	.09*	.07*	.07**	.47**	.41**	.61**	1			
11	.44	.34*	.05	.003*	.03*	.005	.04*	.02*	.02*	.03	1		
12	.42**	.58**	.24**	.05	.20**	.20**	.09	.06**	.31**	.51**	.24*	1	
13	.05*	.04	.02	.00	.06**	0.01*	.01	.03*	.18*	.41**	.27**	.34**	1

주. 1. 상호작용불안, 2. 사회적공포, 3. 거부민감성1, 4. 거부민감성2, 5. 거부민감성3, 6. 거부민감성4, 7. 행동억제1, 8. 행동억제2, 9. 행동억제3, 10. 행동억제4, 11. 행동억제5, 12. 행동억제6, 13. 행동억제7를 나타냄.

\*p<.05, \*\*p<.01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아래 표 10과 같다. 측정변수간의 상관을 살펴보면, 사회적 상호작용불안과 거부민감성의 하위요인 중 거부민감성 1, 거부민감성2, 거부민감성3과 정적 상관을, 사회적공포(수행불안)와 거부민감성 하위요인들과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사회적 상호작용불안과 행동억제의 하위요인 중 행동억제1, 행동억제2, 행동억제3, 행동억제6, 행동억제7과 정적 상관을, 사회적공포(수행불안)와 행동억제1, 행동억제2, 행동억제4, 행동억제5, 행동억제6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거부민감성과 행동억제의 일부 문항에서 상관이 다소 낮게 나왔지만 전체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고, 모든 상관계수는 유의수준 .01 혹은 .05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 H.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분석

본 모형에서 행동억제와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최종 구조모형 분석 시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method)을 이용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분석결과, 아래 표 11과 같이 직접효과는 0.461, 간접효과는 0.24, p값은 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는 행동억제와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한다. 표 11에 나타난 변수들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고려했을 때, 가설 1(행동억제와 사회불안은 정적이 관련이 있을 것이다)과 가설 2(행동억제와 사회불안의 관계를 거부민감성이 매개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지지되었다.

표 11.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분석 결과

구분	효과	P값
직접효과 (행동억제 → 상호작용불안/사회적공포)	0.461	0.01
간접효과 (행동억제 → 거부민감성 → 상호작용불안/사회적공포)	0.24 (0.671*0.358)	0.01
총효과	0.701	0.01

\*\*p<.01

## VI.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행동억제와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이 매개효과를 보이는지 경험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사회불안의 발생경로, 원인적 요인과 그들의 관계를 행동억제와 사회불안의 관계를 거부민감성이 매개할 것이라는 모형을 중심으로 선행연구와 관련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행동억제와 사회불안, 거부민감성을 각각 선행연구에서 검증된 설문 방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중 이미 행동억제와 거부민감성은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각각 7개와 4개의 요인을 추출하였으며, 이 요인의 내적 일관성 확보 유무를 알아보기 위하여 신뢰성 분석을 실시한 결과 Cronbach's  $\alpha$  가 모두 0.8을 넘어 항목간의 내적 일관성은 확보되었다. 또한, 사회불안의 경우 상호작용불안척도와 사회적공포척도를 각각 1개의 요인으로 확인요인 분석하였다. 1차 확인요인 분석한 결과 행동억제의 항목 중 일부 항목의 적합도가 떨어져, 요인부하량이 낮았으나 모델이 적합하다는 평가를 얻어 행동억제는 7개 요인, 거부민감성은 4개 요인, 사회불안은 2개 요인으로 최종 구조모형의 적합도에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대로 행동억제와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을 매개로 행동억제가 거부민감성을 거쳐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쳤다. 즉,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를 증명하기 위하여 간접효과를 분석한 결과, 해당 간접효과가 있음을 증명하였다. 구체적인 결과와 그와 관련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행동억제 성향, 거부민감성, 사회불안의 측정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모든 측정 변수들 간에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즉, 사회불안은 행동억제, 거부민감성과 각각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즉, 사회불안장애의 기질적인 발병원인으로 확인되고 청소년기의 여러 불안장애에 대한 일반적인 취약한 요인(Mick & Telch, 1998)으로 밝혀진 행동억제가 사회불안장애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보고한 기존 연구들(Mick & Telch, 1998; Schwartz, Snidman, & Kagan, 1999)의 결과가 재확인 되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거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은 거부경험 이후에 외 사회불안이나 외로움 혹은 우울 영향을 받기가 쉽다(Baldwin, 1994;

Cooper, Shaver, & Collins, 1998; Simpson, Rholes, & Phillips, 1996)는 연구도 뒷받침 하였다. 또한, 대학생의 거부민감성이 대인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남녀 대학생 모두 거부민감성이 높을 경우 대인불안의 수준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난 김나영(2009) 연구와 거부민감성과 사회불안의 하위 유형인 수행불안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성차를 확인하고 여자가 남자보다 거부민감성과 수행불안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이영아(2014) 연구에서도 확인하였듯이 대학생의 거부민감성과 사회불안은 관련이 있음을 본 연구에서도 확인되었다. 둘째, 행동억제, 거부민감성, 사회불안 간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본 결과, 행동억제와 사회불안 사이에 직접효과가 있었으며, 행동억제가 사회불안으로 발달하는데 있어, 거부민감성의 간접효과를 나타내는 모형이 지지되었다. 또한 행동억제와 사회불안 사이의 직접효과보다 거부민감성을 매개하는 간접효과가 더 유의미하게 나왔던 점을 고려할 때, 거부민감성이 행동억제가 사회불안으로 발달하는데 더 큰 영향력을 주는 것으로 추론해볼 수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 행동억제와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매개 변인으로 사회적 체형불안(오현정, 2013), 부모양육태도(정효주, 2009; 김지원 외, 2009), 또래관계기술, 정서조절 방략(오인경, 2009) 등 다양한 사회인지적 요인이 제안되었다. 이는 행동억제를 유전적 기질로 타고나더라도 부모의 양육행동, 보육의 질, 교육경험 간의 상호작용 효과 같은 환경적 요인에 의해 그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고(도현심, 박성연, 윤종희, 정옥분 Rubin, 2003)한 연구에서도 행동억제가 어떠한 제3의 변인에 의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바로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행동억제와 사회불안의 관계를 거부민감성이라는 인지-정서적 요인이 이 둘의 관계를 매개하였고, 간접효과가 있음으로 본 연구의 가설이 지지됨을 연구 결과를 통해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할 때, 사회불안발달에 있어 행동억제나 거부민감성 같은 인지-정서적 요인이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고, 또한 행동억제와 거부민감성이 모두 높은 경우 불안증상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 시사되었다. 본 연구는 상담실제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 대학생들은 행동억제 성향이 강할수록 거부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거부에 대한 두려움이 클수록 사회불안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불안을 호소하는 대학생들을 상담하는데, 행동억제 성향이 어떤 경로를 거쳐 사회불안을 유발하는지를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즉, 처음 접하거나 친숙하지 않은 사람, 사물, 혹은 상황에 노출되었을 때 일관되게 두려워하거나 회피하는 경향을 보이는 기질(Kagan, 1994; Kagan, Reznick, & Snidman, 1988)을 가진 개인이 대인 관계 상황에서 거부당할 것이라는 불안한 기대를 가지고 있으며, 거부와 관련된 자극에 민감하게 지각하고 거부당할 것에 과민하게 반응하는 특성으로 인해, 결국 과도한 불안을 느끼게 한다는 것을 이해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실제 임상이나 상담 장면에서 상담자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거부민감성에 내재된 비현실적인 사고들을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며, 기능적인 사고로 대체시키는 개입전략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권정혜(2007)는 Beck의 인지모형을 인용하여 모든 불안장애가 인지적 왜곡에서 비롯된다고 가정했다. 즉, 위험을 과도하게 추정하고 두려운 상황이나 사건에 대처할 수 있는 본인의 능력이나 자원을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보았다(Beck & Emery, 1985). 대부분의 인지모형에서는 공통적으로 사회공포증을 가진 환자들이 사회적 상황에 내재된 위험(부정적 평가)의 발생가능성을 강하게 지각하며, 부정적 평가에 뒤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과도하게 평가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인지행동치료(Cognitive Behavioral Therapy: 이하 CBT)에서는 인지적 왜곡을 다루는 방법으로 인지재구성 작업을 치료의 필수적인 요소로 포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수행이 자연스럽게 보여야된다(강박적 부담)는 생각에서 비롯된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그것에 대한 결과를 실제보다 재앙적으로 해석하기 쉽다. 그러므로 척도법이나 소크라테스 질문법을 이용하여 강박적 부담을 낮추어 주고, 현실적이고 적응적인 대안적 사고를 연습해 보는 것이 불안을 줄여주는데 매우 효과적(권정혜, 2007)인 방법들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다양한 사회적 상황이나 수행상황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거부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감소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거부에 대한 두려움이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두려움의 발생기제 및 내용들을 확인하고 이러한 두려움을 감소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행동 기법(예, 체계적 둔감법, 노출치료)을 적용하는 것도 효과적인 개

입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권정혜(2007)의 연구에서 노출치료는 불안한 사람들이 불안반응을 유발하는 상황을 회피하며 이러한 회피반응이 불안 감소에 의해 강화되어 결과적으로 공포반응을 유지하는데 기여한다는 원리에 기초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노출훈련을 통해 다양한 불안유발상황에 노출하도록 만들어, 각각의 두려워하는 사회적 상황에 머물러 있게 되면 습관화와 함께 새로운 학습이 일어나 불안이 감소하게 된다고 한다. 최근에는 비디오피드백을 활용해 노출훈련을 실시하는데, 노출훈련을 실시하는 동안에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자신의 모습에 대한 정신적 자기표상과 비디오를 촬영하여 객관적으로 나타난 모습의 차이를 확인하여 사회불안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활용된다고 알려져 있다. 한편, 사회불안을 호소하는 대학생들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및 수행에 대해 이상적인 기준을 갖고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나 그 외 사회불안의 다양한 측면들을 상담자와의 관계에서도 드러낼 가능성이 높다. 이때, 상담자는 수용적이고 지지적인 치료적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사회불안을 가진 대학생들에게 안전한 상담관계에서 자신이 생각과는 달리 실수가 용인되고 부정적인 평가가 아닌 수용과 긍정적인 피드백을 제공받음으로써 이제까지 지닌 거부와 그로 인한 두려움 및 사회불안이 적절하지 않음을 깨닫는 교정적인 정서경험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상담센터를 찾은 대학생들은 안전한 상담관계에서 교정적 정서경험을 체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를 자신의 일상적인 관계에서나 수행상황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자는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행동억제와 사회불안의 관계를 거부민감성이 매개할 것이라 가정하고 행동억제기질이 부모양육태도로 인해 거부민감성을 발달시키고 행동억제는 거부민감성에 선행 변인으로 거부민감성은 사회불안의 개인의 인지-정서적 변인으로 사회불안의 발생 및 유지에 있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구체적인 발생 경로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통해, 행동억제와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이라는 개인의 인지적 평가 경향성이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이는 사회불안을 경험하는 개인에게 치료적 개입을 위한 특정한 변인을 확인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광주와 전라남도 소재 4개 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

했다. 연구결과를 우리나라의 모든 대학생들에게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청소년 및 성인에게도 연구결과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연령대 및 교육배경을 지닌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대학생의 주관적인 보고와 판단에 의존한 자기보고식 척도를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결과 도출을 했기 때문에 연구대상자의 반응태도에 의하여 왜곡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특히 행동억제 기질의 경우, 과거를 회상하고 답하는 과정에서 불확실하게 보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따라서 부모의 보고나 면접, 관찰 등을 통해 다양한 측정 방법을 통해 결과의 타당성을 높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후속 연구에서는 거부민감성뿐 아니라 행동억제 성향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사회불안을 증가시키는 또 다른 변인뿐만 아니라 사회불안을 감소시키는 긍정적인 면에 초점을 맞춘 추가적인 인지 변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앞으로 미흡한 점을 보완해서 실험 연구를 통한 사회불안을 가진 대상들이 주요변인들의 치료적 개입에 있어 어떠한 변화를 가지며, 후속 연구를 통해 치료결과 이 변인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본다면, 사회불안으로 개인의 안녕감에 고통을 받는 개인에게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 참고문헌

- 구훈정 (2013). **사회불안장애의 주의개입, 탈개입 및 회피과정**.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권석만 (2013). **현대이상심리학-2판**. 서울: 학지사.
- 권은미, 신민섭, 김은정 (2009). 내현적 자기애가 사회공포증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자기 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8(3), 627-642(16쪽).
- 김교현, 김원식 (2001). 한국판 행동활성화 및 행동억제 체계(BAS/BIS) 척도.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6(2), 19-37.
- 김나영, 조유진, (2009). 대학생이 거부민감성이 대인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기개념의 매개 효과. **한국인간발달학회**, 16(3), 149-162.
- 김나예 (2012). **완벽주의와 내현적 자기애가 부정적 평가 두려움을 매개로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대구카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무경, 오윤희, 오강섭 (2005). 지각된 부모 양육행동이 사회 불안 증상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4, 599-614.
- 김민선, 서영석 (2009). 평가염려 완벽주의와 사회불안의 관계: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자기제시동기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8(3), 525-545.
- 김성주 (2012). **대학생의 평가염려 완벽주의와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부정적 및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인지적 정서조절의 매개효과**.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순희 (2010). **부정적 및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사회불안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윤희 (2011). **집단모래놀이치료가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사회불안과 외로움 및 자기표현에 미치는 영향**. 남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은정, 원호택 (2000). 사회공포증 집단이 사회공포 상황에서 보이는 사회적 자기처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 33-45.
- 김주연, 성태훈, 김지혜, 신민영, (2014). 거부민감성과 대인관계문제의 관계

- 에서 주의력 조절의 조절효과. **한국인지행동치료학회**, 14(1), 21-37.
- 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구조방정식모형으로 논문쓰기**.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준수 (2013). 거부민감성과 이해와 성경적인 대처방안 연구. **복음과 상담**, 20, 65-93.
- 김지원, 하은혜, 조유진, (2009). 청소년의 행동억제기질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지각된 부모양육행동의 중재효과. **아동학회지**, 30(6), 535-548.
- 김향선, 이영순, (2011). 대학생의 거부민감성과 자기격려가 대인관계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재활심리학회**, 18(3), 375-392.
- 도현정, 김정민, (2014). 여자 청소년의 행동억제와 섭식태도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체형불안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1, 57-82.
- 류혜라, 박기환 (2014). 대학생의 거부민감성이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지적 정서조절의 중재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9(1), 203-218.
- 민성혜, 김지현, 정지나 (2007).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행동 억제/활성화 성향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정서표현을 매개로 하여. **한국영유아보육학**, 49, 41-63.
- 민성혜, 유영미 (2006). 대학생의 행동억제/활성화 체계에 따른 자존감의 차이에 관한 연구. **한국인간발달학회**, 13(1), 81-95(15쪽).
- 민지영 (2012). 거부민감성 및 부정적 정서강도와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간의 관계; 주의조절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민숙 (2014). 여자 대학생의 거부민감성과 우울의 관계: 주의조절의 매개효과. **서강대학교 학생생활상담연구소**, 35(1), 35-51.
- 박선영 (2003). **사회불안 유발상황의 구분 및 사회불안 하위유형의 차별적 특성**.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성연, 송주현, 케네스 루빈 (2008). 4세 아동의 단독행동 하위유형들과 행동억제 및 양육행동의 관련성. **아동학회지**, 29(4).
- 박성연, 박성은, (2001). 아동의 초기 정서성, 양육행동 및 모자녀 애착과 남, 여 아동의 행동억제 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2(2), 29-47.
- 박신영 (2014).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거부민감성과 역기능적 완벽주의의 역할**.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은희, 윤희영, 권정혜 (2011). 사회적 상호작용에 나타나는 사회공포증 집단의 행동 특성 및 인상 평가. **인지행동치료**, 11(1), 53-73.
- 박지연, 양난미, (2014). 대학생의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와 사회불안의 관계 : 사회적 지지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6(2), 363-388.
- 박혜련, 손은정 (2012). 대학생의 이성 관계에서 거부민감성, 사회불안, 자기노출이 친밀감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3(3), 1083-1099.
- 박혜정, 홍상황, (2014). 아동의 거부민감성과 또래 괴롭힘 피해의 관계에서 자아 존중감, 사회적 위축 및 억제의 매개효과. **한국초등교육**, 25(3), 1-18.
- 박희경 (2011). **성인애착과 갈등해결전략의 관계 :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영석 (2010). 상담심리 연구에서 매개효과와 조절효과 검증: 개념적 구분 및 자료 분석 시 고려 사항.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4), 1147-1168.
- 성경현, 유제민, 최신혜 (2007). 부모간 양육태도 불일치가 고등학생의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의 중재효과와 행동억제체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2), 255-272.
- 성정아, 홍혜영, (2014). 대학생의 이성관계에서 불안정 성인애착이 거부민감성과 자기노출의 매개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6(2), 387-414.
- 성태제 (2012). **SPSS/AMOS 를 이용한 알기 쉬운 통계분석(기술통계에서 구조방정식모형까지)**. 서울: 학지사.

- 손은경, 민하영, (2011). 어머니 애착과 거절민감성이 학령기 아동의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지원학회지**, 7(2), 1-17.
- 신정아, 김향숙 (2013). 행동억제성향, 감정명명곤란, 반추와 걱정이 우울 및 불안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지행동치료학회**, 13(2), 269-283.
- 신정아, 김향숙 (2013). 행동억제성향, 감정명명곤란, 반추와 걱정이 우울 및 불안에 미치는 영향, **인지행동치료학회**, 13(2), 269-283(15쪽).
- 안현선, 박성연 (2010). 행동억제와 완벽주의가 여고생의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인간발달연구**, 17(1), 209-225.
- 양윤란, 오경자 (2004). 사회불안 아동의 해석, 기대 및 판단에서의 인지 편향. **소아 · 청소년정신의학**, 15(2), 152-159.
- 오경자, 문혜신(2002). 한국판 아동, 청소년용 사회 불안 척도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2), 429-443.
- 오경자, 양윤란 (2003). 청소년기 사회불안의 발생과 유지의 심리적 기제 I : 행동억제기질, 부모양육태도 및 외상경험의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2, 557-576.
- 오윤희, 안창일, 오강섭 (2005). 한국판 자기보고식 회고적 행동억제 척도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4(3), 677-692.
- 우종필, (2012). **우종필교수의 구조방정식모델 개념과 이해**. 서울: 한나래.
- 원호택, 조용래 (1999). 사회공포증에 대한 인지적 평가 3 : 역기능적 신념 검사의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8(1), 141-162(22쪽).
- 윤봉수, 정봉교 (2009). 상담일반 : 행동억제와 행동활성체계가 정서자각, 정서억제 및 정서표현을 매개로 한 대인관계에 미치는 효과. **상담학연구**, 10(1), 219-233.
- 윤희경, 윤희식, (2014). 성인애착이 대학생의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사회과학연구**, 16, 75-100.
- 이미정 (1998). **3세 여아의 행동 억제와 그 관련변인 : 영아기 정서성, 부모의 내향성, 부모의 양육행동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복동 (2000). **성인애착과 이성 관계 만족: 거부민감성과 귀인양식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순목 (1995). **요인분석: Exploratory factor analysis를 중심으로**, 서울: 학지사.
- 이시형, 신영철, 오강섭(1994). 사회공포증에 관한 10년간의 임상연구. **신경정신학회**, 33(2), 305-312.
- 이시형, 여인중, 오강섭 (1994). 발병 연령에 따른 사회공포증의 임상고찰. **신경정신의학**, 33, 953-959.
- 이영아 (2014). **남녀 대학생에서 거부민감성, 주의조절, 사회불안 간의 관계: 주의초점화와 주의전환의 매개 및 조절효과**.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정윤 (1996). **사회불안증에 대한 인지행동치료와 노출치료의 효과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현정 (2007). **중학생의 행동억제 성향과 신경증 경향, 주의조절이 불안 증상발달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희경, 김경희, 이홍권, (2014). 거부민감성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긍정 정서를 통한 파국적 사고의 매개된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6(1), 97-121.  
71-88.
- 장혜인 (2003). **지각된 부모의 양육 행동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효주 (2009). **청소년의 행동억제 기질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부모 양육태도의 중재효과**.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민현 (2003). **애착유형,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대인불안의 관계**. 카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옥분, 박성연, Rubin, 윤종희, 도현심, (2002). 걸음마기 아동의 행동억제 : 아동의 기질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과의 관계. **유아학회지**, 23(4),
- 정지영, 김종남 (2011). 중학생의 우울과 지각된 부모양육태도, 인지적 정서 조절전략, 행동억제 기질간의 관계 : 성차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8(12), 227-254.
- 조용래 (1999). 역기능적 신념과 사회공포증상 간의 관계에서 부적응적인 자동적 사고의 매개효과 검증: 구조방정식모델 접근법을 사용하여. **한국심**



- 리학회지: 임상, 18(1), 17-36.
- 조용래 (2004). 역기능적 신념검사의 요인구조: 확인적 요인분석의 적용. **인지행동치료**, 4, 61-71.
- 조용래 (2006). 역기능적 신념과 발표상황의 불안반응간의 관계에서 부적응적인 자동적 사고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5, 205-219.
- 조용래 (2007). 정서조절곤란의 평가: 한국판 척도의 심리측정적 속성.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 1015-1038.
- 조용래, 김은정, 원호택 (1997). 대인불안에 대한 인지적 평가(II): 한국판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자기 진술 검사의 신뢰도와 타당도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6, 233-249.
- 조용래, 김학렬 (1999). 사회공포증에 대한 집단인지행동치료의 효과에 관한 예비 연구. **조선의대논문집**, 24, 165-179.
- 조용래, 원호택 (1997). 대인불안에 대한 인지적 평가: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자기 효능감 척도의 개발과 타당화에 관한 연구. **심리학의 연구문제**, 4, 397-434(38쪽).
- 최미미 (2008). **지각된 부모양육행동과 행동억제가 대학생의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역기능적 신념과 정서조절곤란의 매개 효과 검증**. 한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혜선 (2004). **아동의 행동억제, 보육경험 및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위축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나, 이승연, 노경란 (2014). 중학생의 행동억제체계, 지각된 부모양육행동, 불안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21(2), 327-348.
- 허묘연, 오강섭, 이시형. (1998). 사회공포증과 관련된 양육태도검사의 개발 연구. **소아·청소년정신의학**, 9(2), 198-208.
- 허재흥 (2005a). 자율신경계 신체반응, 인지과정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 983-1002.
- 허재흥 (2005b). 대학시기 사회불안 발생의 심리적 기제: 행동억제기질, 부모 양육태도 및 외상경험의 영향. **학생생활연구**, 17, 71-85.
- 허재흥, 조용래 (2005). 자기불일치와 사회불안이 대학생의 학업적응에 미치는

- 는 영향. **인지행동치료**, 5, 85-100.
- 호유나 (2005). **청소년의 가족 사회적 환경, 부부갈등, 행동억제 기질과 사회 불안과의 관계**.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홍상황 (2012). 한국판 아동용 거부민감성질문지의 심리측정적 속성. **초등상담연구**, 11-3, 351-370.
- 홍상황, 이은주 (2014). 아동의 거부민감성과 사회적 억제의 관계에서 자아 존중감과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매개효과. **초등상담연구**, 13(1), 46-69.
- 홍세희 (1999). 문항반응 이론과 요인분석을 이용한 척도개발 및 타당화. **임상심리학회 3차 workshop**, 1-89.
- 홍세희 (2000a).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 심리학회지: 임상**, 19, 161-177.
- Alden, L. E., & Wallace, S. T. (1995). Social phobia and social appraisal in successful and unsuccessful social interaction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3, 497-505.
- Alloy, L. B., Kelly, K. A., Mineka, S., & Clements, C. M. (1990). Comorbidity of anxiety and depressive disorders: A helplessness-hopelessness perspective. In J. D. Maser & C. R. Cloninger (Eds), *Comorbidity of mood and anxiety disorders*(pp.499-543).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Press.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DSM-5™**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Fifth Edition. 서울: 학지사.
- Anderson, J. L., & Gerbing, D. W. (198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tice: A review and recommended two-step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103, 411-423.
- Arnkoff, D. B., & Glass, C. R., (1989). Cognitive assessment in social anxiety and social phobia. *Clinical Psychology Review*, 9, 61-74.
- Ayduk O, Downey G, Minji KM (2001) Rejection sensitivity and depressive symptoms in wome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 Psychology Bulltin* 27(7), 868–877.
- Baumeister, R. F., & Leary, M. R. (1995). The need to belong : Desire for interpersonal attachment as a fundamental human motivation. *Psychological Bulletin*, 117, 497–529.
- Beck, A. T., Emery, G., & Greenberg, R. L., (1985). Anxiety disorders and phobias: A Cognitive Perspective. New york: Basic Books.
- Beidel, D. C., Turner, S. M., & Morris, T. L. (1999). Psychopathology of childhood social phobia.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8(6), 643–650.
- Beidel, D. C., Turner, S. M., & Morris, T. L. (2000). Behavioral treatment of childhood social phobia.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8, 1072–1080.
- Bentler, P. M., & Chou, C. (1987).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K. A. Bollen & J. S. Long (Ed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 Newbury Park, CA: Sage.
- Bonita L., Geraldine D., Chery B., & Iris P. (2007). Social Causes and Consequences of Rejection Sensitivity.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17(3), 481–506.
- Bowlby, J. (1980). *Attachment and loss*. New York: Basic Books.
- Bruce, S. E.,Yonkers, K. A., Otto, M. W., Eisen, J. L., Weisberg, R. B., Pagano, M.,Shea,T.M.,& Keller, M. B. (2005). Influence of psychiatric comorbidity on recovery and on recurrence in generalized anxiety disorder, social phobia, and panic disorder: A 12-year prospective study.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62,1179–1187.
- Bryant B, Trower P., E. (1974) Social difficulty in a student sample. *Br Journal of Educational of Psychology*, 44, 13–21
- Butler, G. (1985). Exposure as a the treatment for social phobia.

- Behavior Research and Therapy*, 35, 740–756.
- Chris H., Joel D. K., Helena C. K., Barr T. (1998). Linking Self-Reported Childhood Behavioral Inhibition to Adolescent Social Phobia.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37(1), 1308–1316.
- Clark, D. M., & Wells, A. (1995). A cognitive model of social phobia. In R. G. Heimberg, M. R. Liebowitz, D. A. Hope, & F. R. Schneier (Eds.), *Social Phobia: Dignosis, assessment, and treatment* (pp.69–33). New York: Guilford Press.
- Cooper, M. L., Shaver, P. R., & Collins, N. L. (1998). Attachment styles, emotion regulation, and adjustment in adolesc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tin*, 74, 1380–1397.
- Chronis-Tuscano, A., Degnan, K. A., Pine, D. S., Perez-Edgar, K., Henderson, H. A., Diaz, Y., Raggi, V. L., Fox, N. A. (2009). Stable Early Maternal Report of Behavioral Inhibition Predicts Lifetime Social Anxiety Disorder in Adolescence.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48(9), 928–935.
- Crozier, W. R., & Burnham. M. (1990). Age-related differences children's understanding of shyness.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8, 170–185
- Davidson, R. J. (2000). Affective style, psychopathology, and resilience: Brain mechanism and plasticity. *American Psychologist*, 55, 1196–1214.
- Degnan, K. A., & Fox, N. A. (2007). Behavioral inhibition and anxiety disorders: Multiple levels of a resilience proces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9, 729–746.
- Essau, C., Conradt, J., & Peterman, F. (1999). Frequency and co-morbidity of social phobia and social fears in adolescents. *Behavior Research and Therapy*, 37, 831–843.
- Emmelkamp, P. M. G. (1982). Phobic and obsessive-compulsive

- disorders: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New York: Plenum Press.
- Engfer, A. (1993).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shyness in boys and girls : A 6-year longitudinal study. In K. H. Rubin, J. B. Asendorpf, *Social withdrawal, inhibition, and shyness in childhood (pp.49-79)*.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 Feldman, S. , Downey, G. (1994). Rejection sensitivity as a mediator of the impact of childhood exposure to family violence on adult attachment behavior.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6(1), 231.
- Fox, N. A., Henderson, H. A., Marshall, P. J., Nichols, K. E., & Ghera, M. M. (2005). Behavioral inhibition: linking biology and behavior within a developmental framework.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6, 235-262.
- Fresco D. M., Heimberg R. G. (2001) Empirically supported psychological treatments for social phobia. *Psychiatric Ann* 31(1). 489-496.
- Gray, J. A. (1970). The psychophysiological basis of introversion - extraversion.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8, 249-266.
- Gray, J. A. (1981). *A critique of Eysenck's theory of personality*. In H. J. Eysenck(Ed). *A model for personality*(pp. 246-276). Berlin: Springer-Verlag.
- Gray, J. A. (1987). *The psychology of fear and stres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ray, J. A. (1990). Brain systems that mediate both emotion and cognition. *Cognition and Emotion*, 4, 269-288.
- Geraldine D., Scott I. F. (1996). Implications of Rejection Sensitivity for Intimate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6), 1327-1343.
- Ginsberg, G. S., La Greca, A. M., & Silverman, W. K. (1998). Social anxiety in children with anxiety disorders: Relation with social

- and emotional functioning.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6, 175–185.
- Hayward, C., Killen, J., Kraemer, J., & Taylor, C. (1998). Linking self-reported childhood behavioral inhibition to adolescentsocialphobia.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9, 721–726.
- Heimberg, R. G. (1989). Cognitive and behavioral treatments for social phobia: A critical analysis. *Clinical Psychology Review*, 9, 107–128.
- Heimberg, R. G. (1994). Cognitive assessment strategies and the measurement of outcome of treatment for social phobia. *Behavior Research and Therapy*, 32, 269–280.
- Hong, S., Malik, M. L., & Lee, M. K. (2003). Testing configural, metric, scalar, and latent mean invariance across genders in sociotropy and autonomy using non-western sample. *Educational and Psychology Measurement*, 63, 636–654.
- Hughes, A. A., Heimberg, R. G., Coles, M. E., Gibb, B. E., Liebowitz, M. R., & Schneier, F. R. (2006). Relations of the factors of the tripartite model of anxiety and depression to types of social anxiety.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4, 1629–1641.
- Kagan, J. (1989). Temperamental contributions to social behavior. *American Psychologist*, 44, 668.
- Kagan, J. (1994). Galen's prophecy: Temperament in human nature. New York: Basic Books.
- Kagan, J. (1997). Temperament and the reactions to the unfamiliar. *Child development*, 68, 139–143.
- Kagan, J., Reznick, J. S., Clarke, C., Snidman, N., & Garcia Coll, C. (1984). Behavioral inhibition to the unfamiliar. *Child development*,

55, 2212-2225.

- Kagan, J., Reznick, S., Snidman, N., Gibbons, J., & Johnson, M. (1988). Childhood derivatives of Inhibition and lack of inhibition to unfamiliar. *Child Development*, 59, 1580-1589.
- Kagan, Jerome , Reznick, J. Steven , Gibbons, Jane. (1990). Inhibited and uninhibited types of children.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7(11), 19.
- Kashdan, T. B., & Herbert, J. D. (2001). Social anxiety disorder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Current status and future directions. *Clinical Child and Family Psychology Review*, 4, 37-61.
- Kessler R. C., Foster, C. L., Saunders, W. B., & Stang. P. E. (1995). Social consequences of psychiatric disorders I: Educational attainment.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5, 613-619.
- Katja S., Esther H., Charlotte R., & Babette R.(2011). Rejection Sensitivity and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Clinical Psychology and Psychotherapy*. 18, 275-283
- Levy, S., Ayduk, O., & Downey, G.(2001). The role of rejection sensitivity in people's relationships with significant others and valued social group. In M. R. Leary (Eds.), *Interpersonal Rejec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London, B., Downey, G., Bonica, C., & Paltin, I. (2007). Social causes and consequences of rejection sensitivity in adolescents. *Journal of Research in Adolescence*, 17, 481-506.
- Mattick, R. P., Clarke, J. C. (1998).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measures of social phobia scrutiny fear and social interaction anxiety.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Pergamon Press, 36(4), 455-470.

- Mattick, R. P., Clarke, J. C. (2012). Behavioral Inhibition and Risk for Developing Social Anxiety Disorder: A Meta-Analytic Study,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51(10), 1066-1075.
- McClelland, K. (1988). Student cultures: campus life. *Science*, 240(4859), 1677-8.
- Mick, M., & Telch, M. (1998). Social anxiety and history of behavioral inhibitions in young adults. *Journal of Anxiety Disorder*, 12, 1-20.
- Mirenl, B., Earleywine, M. (2005), The Cannabis and Psychosis Connection Questioned: A Comment ON Fergusson et al. *Addiction*, 100(5), 714-715.
- Neal, J. A., Edelmann, R. J., & Glachan, M. (2002). Behavioral inhibition and symptoms if anxiety and depression : Is there a specific relationship with social phobia?. *British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41(4), 361-37.
- Park, S., Belsky, J. Putman, S., & Crnic, K. (1997). Infant emotionality parenting, and 3 years inhibiton: Exploring stability and lawful discontinuity in a male sample. *Developmental Psychology*, 33, 218-227.
- Pfeifer, M., Goldsmith H. H., Davidon, R., J., & Rickman, M. (2002). Continuity and Change in Inhibited and Unhibited Children. *Child Development*, 73(5), 1474-1485.
- Rapee, R. M., & Heimberg, R. G. (1997). A model of social phobia. *Behavior Research and Therapy*, 35, 740-756.
- Rezinick, J. C., Hegeman, I. M., Kafman, E. R., Woods, S. W., & Jacobs, M. (1992). Retrospective and concurrent self-report of behavioral inhibition and their relation to adult mental health.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4, 301-321.



- Rothbart, M. K. (1988). Temperament and the development of inhibited approach, *Child Development*, 59, 1241–1250.
- Schwartz, C. E., Snidman, N., & Kagan, J. (1999). Adolescent social anxiety as an outcome of inhibited temperament in childhood.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8(8), 1008–1015.
- Simpson, J. A., Rholes, W. S., & Phillips, D. (1996). Conflict on close relationships: An attachment perspectiv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1, 899–914.
- Sullivan, H. S. (1937). A note on the implications of psychiatry, the study of interpersonal relations, for investigation in the social scienc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43, 157–164.
- Todd B. Kashdan, James D. H. (2001). Social Anxiety Disorder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Current Status and Future Directions. *Clinical Child and Family Psychology Review*, 4(1), 37–61.
- Wittchen, H. U., Stein, M. B. & Kessler, R. C. (1999). Social fears and social phobia in a community sample of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prevalence, risk factors and comorbidity. *Psychiatrica Scandinavica*, 96, 58–63.

## 부 록

- 부록 1. 한국판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척도(K-SIAS)
- 부록 2. 한국판 사회공포증척도( K-SPS)
- 부록 3. 한국판 자기보고식 회고적 행동억제 척도(K-RSRI)
- 부록 4. 거부민감성 질문지(The Rejection Sensitivity Questionnaire)

##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석사학위 논문의 바탕이 될 연구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것으로, 대학생 여러분의 평소 생각과 감정 및 태도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본 설문지의 결과는 연구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음을 약속드리며,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답은 본 연구를 위한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며, 설문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4년

조선대학교 보건과학대학원 상담심리학과

임상심리학 전공

지도교수 정승아

연구자 강혜영

e-mail : hongdu00@nate.com

## 부록 1. 한국판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척도(K-SIAS)

▪ 다음의 문항들은 사회적 상황에서 경험할 수 있는 생각과 감정에 관한 것입니다. 문항을 잘 읽으시고, 자신에게 해당되는 정도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에 동그라미(O) 해주십시오. 각각의 문항들은 **주의 깊게 읽으시고, 한 문장도 빠뜨리지 말고** 응답하시되 최대한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2	3	4	5

번 호	문항	전 혀	약 간	보 통	자 주	항 상
1	나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과 대화할 때 긴장된다.....	1	2	3	4	5
2	다른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기가 힘들다.....	1	2	3	4	5
3	내 자신이나 내 감정에 대해서 말해야 할 때면 긴장된다.....	1	2	3	4	5
4	동료들과 편안하게 어울리는 것이 어렵다.....	1	2	3	4	5
5	내 나이 또래 친구들을 사귀기 쉽다.....	1	2	3	4	5
6	길에서 아는 사람을 만나면 긴장된다.....	1	2	3	4	5
7	여러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불편하다.....	1	2	3	4	5
8	다른 사람과 단 둘이 있는 상황에서는 긴장된다.....	1	2	3	4	5
9	모임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편안하다.....	1	2	3	4	5
10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이 어렵다.....	1	2	3	4	5
11	이야깃거리를 쉽게 생각한다.....	1	2	3	4	5
12	이상하게 보일까봐 나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 걱정된다.....	1	2	3	4	5
13	다른 사람 주장에 반대하기가 어렵다.....	1	2	3	4	5
14	매력적인 이성과 이야기하는 것이 어렵다.....	1	2	3	4	5
15	사회적 상황에서 무엇을 말해야할지 몰라 걱정하곤 한다.....	1	2	3	4	5
16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어울려야 할 때 불편하다.....	1	2	3	4	5
17	대화 도중 부적절한 말을 할 것 같다.....	1	2	3	4	5
18	여러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무시당할까봐 걱정하곤 한다.....	1	2	3	4	5
19	여러 사람들과 어울릴 때 긴장한다.....	1	2	3	4	5
20	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인사를 해야 할지 망설인다.....	1	2	3	4	5

## 부록 2. 한국판 사회공포증척도( K-SPS)

▪ 다음 문항들은 사회적 상황에서 경험할 수 있는 생각과 감정에 관한 것입니다. 문항을 잘 읽으시고, 자신에게 해당되는 정도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에 동그라미(O) 해주십시오. 각각의 문항들을 **주의 깊게 읽으시고, 한 문장도 빠뜨리지 말고** 응답하시되 최대한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2	3	4	5

번호	문항	전혀	약간	보통	자주	항상
1	다른 사람들 앞에서 글을 써야 할 때면 불안해진다.	1	2	3	4	5
2	공중 화장실을 사용할 때 남의 이목을 의식하게 된다.	1	2	3	4	5
3	내 목소리와 내게 귀 기울이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갑자기 의식되곤 한다.	1	2	3	4	5
4	길을 가고 있을 때 사람들이 나를 주시하지 않을까 신경이 쓰인다.	1	2	3	4	5
5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얼굴이 붉어질까봐 두렵다.	1	2	3	4	5
6	다른 사람들이 이미 앉아있는 방에 들어갈 때는 남의 이목을 의식하게 된다.	1	2	3	4	5
7	다른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을 때 떨게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1	2	3	4	5
8	버스나 기차에서 다른 사람들과 마주앉아야 할 경우 긴장되곤 한다.	1	2	3	4	5
9	다른 사람에게 정신을 잃거나 병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공포스럽다.	1	2	3	4	5
10	여러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무언가를 마시는 것이 힘들다.	1	2	3	4	5
11	식당에서 낯선 사람들 앞에서 음식을 먹을 때면 남의 이목을 의식하게 된다.	1	2	3	4	5
12	사람들이 내 행동을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걱정된다.	1	2	3	4	5
13	식판을 들고 번잡한 식당을 가로질러 지나가려면 긴장되곤 한다.	1	2	3	4	5
14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제력을 잃을까봐 걱정된다.	1	2	3	4	5
15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끄는 행동을 하게 될까봐 걱정된다.	1	2	3	4	5
16	엘리베이터에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지 않을까 긴장된다.	1	2	3	4	5
17	줄을 서 있을 때, 나만 유난히 눈에 띌 것 같이 느껴진다.	1	2	3	4	5
18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할 때면 긴장된다.	1	2	3	4	5
19	다른 사람 앞에서 고개를 가로 찢거나 꼬덕거릴 것 같아 걱정된다.	1	2	3	4	5
20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거북하고 긴장된다.	1	2	3	4	5

### 부록 3. 한국판 자기보고식 회고적 행동억제 척도(K-RSRI)

▪ 다음은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까지 어떤 행동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문항을 잘 읽으시고, 오른쪽에 있는 5가지 대답 가운데 과거 본인의 상태를 가장 잘 표현한 대답에 자신에게 해당되는 정도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항상 그렇다(5)에 동그라미(O) 해주십시오. 각각의 문항들을 주의 깊게 읽으시고, 한 문장도 빠뜨리지 말고 응답하시되 최대한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2	3	4	5
번 호	문항	전 혀	약 간	보 통	자 주	항 상
1	아파서 학교에 결석하는 날이 많았다.....	1	2	3	4	5
2	아파서 양호실에 가는 적이 많았다.....	1	2	3	4	5
3	병원에 가도 이유를 알 수 없는데, 머리가 아프거나 배가 잘 아팠다.....	1	2	3	4	5
4	악몽을 자주 꿰다.....	1	2	3	4	5
5	어둠을 무서워했다.....	1	2	3	4	5
6	나 또는 부모님이 항상 자기 전에 침대 밑이나 옷장을 확인해 보았다.....	1	2	3	4	5
7	잠자리에 들 때면 동물 인형이나 담요, 장난감을 꼭 안고 잤다.....	1	2	3	4	5
8	개나 고양이 기타 애완동물을 무서워했다.....	1	2	3	4	5
9	잘 모르는 동물을 길거리나 다른 사람의 집에서 만나면 두려워했다.....	1	2	3	4	5
10	유괴를 당할까봐 아니면 부모님과 헤어질까봐 두려웠다.....	1	2	3	4	5
11	어린 시절 부모님이 처음 만나 잘 모르는 사람에게 나를 맡기고 외출할 때면 긴장했다.....	1	2	3	4	5
12	부모님이 외출하면서 나를 데리고 가지 않을 때면 부모님이 돌아오시지 않을까봐 걱정했다.....	1	2	3	4	5
13	친구 집에 가서 자고 오기도 했다.....	1	2	3	4	5
14	먹어보지 않던 새로운 음식도 잘 먹었다.....	1	2	3	4	5
15	학교에 처음 가거나 학년이 바뀌어 처음 등교하는 날에는 보통 겁을 먹었다.....	1	2	3	4	5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2	3	4	5

번 번호	문항	전 혀	약 간	보 통	자 주	항 상
16	학교나 그 외에도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에 가지 않으려고 아픈 체 한 적이 있다.....	1	2	3	4	5
17	교단 앞으로 불러 나갈 때면 긴장되었다.....	1	2	3	4	5
18	답을 알고 있더라도 선생님이 내 이름을 부르면 긴장되었다...	1	2	3	4	5
19	발표를 하거나 질문에 대답할 때 내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선생님이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였다.....	1	2	3	4	5
20	수업시간에 모르는 것이 있으면 선생님께 도움을 청하였다.....	1	2	3	4	5
21	쉬는 시간에 반에서 주류가 되는 아이들과 잘 놀았다.....	1	2	3	4	5
22	여럿이 모여 게임하는 것을 좋아했다.....	1	2	3	4	5
23	내 또래의 새 친구 만나기를 좋아했다.....	1	2	3	4	5
24	여러 사람 앞에서 발표를 하게 되면 목소리가 잠기거나 떨리는 편이었다.....	1	2	3	4	5
25	나는 인기가 있었다.....	1	2	3	4	5
26	알레르기나 불면증, 변비 때문에 병원에 가야하거나 고생을 하였 다.....	1	2	3	4	5
27	불을 켜놓지 않으면 잠들 수 없었다.....	1	2	3	4	5
28	여럿이 노래를 부르거나 노는데 잘 참여하였다.....	1	2	3	4	5
29	쉽게 마음에 상처를 받았다.....	1	2	3	4	5
30	친구나 가족에게 화가 나면 화가 났다고 이야기할 수 있었다.	1	2	3	4	5

## 부록 4. 거부민감성 질문지

### (The Rejection Sensitivity Questionnaire)

▪ 다음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상황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는가를 알아보는 질문들입니다. 각 상황을 주의 깊게 읽은 후, **2가지 질문 '모두'에 대해 자신을 가장 잘 나타내는 숫자에 동그라미(O)** 해주십시오. 평소의 느낌과 생각을 솔직하게 응답해주시고, 제시된 상황에 처해 본 경험이 없다면, 만일 그러한 상황에 처할 경우를 '상상'하면서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다소 그렇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6

<b>상황1.</b>	같은 수업을 듣는 사람에게 노트를 빌려달라고 한다.					
1) 노트를 빌려주지 않을 지에 대해 걱정되거나 불안하다	1	2	3	4	5	6
2) 노트를 빌려줄 것이라 예상된다	1	2	3	4	5	6

<b>상황2.</b>	친구에게 이사 와서 나와 함께 살자고 부탁한다.					
1) 이사 오기를 거절하지 않을까 걱정되거나 불안하다	1	2	3	4	5	6
2) 이사 오라는 부탁을 받아 들이 것이라 예상된다	1	2	3	4	5	6

<b>상황3.</b>	부모님에게 어떤 공부를 더 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부탁한다.					
1) 부모님이 결정을 도와주지 않을까 걱정되거나 불안하다	1	2	3	4	5	6
2) 부모님이 결정을 도와주실 것이라 예상된다	1	2	3	4	5	6

<b>상황4.</b>	잘 모르는 사람에게 데이트를 신청한다.					
1) 데이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걱정되거나 불안하다	1	2	3	4	5	6
2) 데이트 신청을 받아들일 것이라 예상된다	1	2	3	4	5	6

<b>상황5.</b>	당신의 남자(여자)친구는 오늘 밤에 다른 친구들과 약속이 있는데 당신은 오늘 당신의 남자(여자)친구와 함께 있고 싶을 때, 그(그녀)에게 함께 있어 달라고 요구한다.					
1) 남자(여자)친구가 당신과 함께 있어줄지 걱정되거나 불안하다	1	2	3	4	5	6
2) 남자(여자)친구가 당신과 함께 있어 줄 것이라 예상된다	1	2	3	4	5	6

<b>상황6.</b>	부모님에게 용돈을 더 달라고 부탁한다.					
1) 부모님이 용돈을 더 주지 않을까 걱정되거나 불안하다	1	2	3	4	5	6
2) 부모님이 용돈을 더 주시리라 예상된다	1	2	3	4	5	6

<b>상황7.</b>	수업이 끝난 후, 교수님에게 수업 중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질문하고, 좀 더 설명해 주실 것을 요구한다.					
1) 교수님이 설명을 더 해 주실지 걱정되거나 불안하다	1	2	3	4	5	6
2) 교수님이 설명을 더 해주시리라 예상된다.	1	2	3	4	5	6



<b>상황8.</b>	<b>친한 친구와 심하게 다투고 난 후에, 그 친구에게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건다.</b>						
1) 친구에게 다가가는 것에 대해 주저되거나 불안하다	1	2	3	4	5	6	
2) 아무런 거리낌 없이 다가가서 대화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1	2	3	4	5	6	

<b>상황9.</b>	<b>같은 수업을 듣는 사람에게 같이 커피를 마시자고 제의한다.</b>						
1) 그 사람이 그러자고 할지 걱정되거나 불안하다	1	2	3	4	5	6	
2) 그 사람이 같이 커피를 마실 것이라 예상된다	1	2	3	4	5	6	

<b>상황10.</b>	<b>졸업 후, 직장을 구하지 못했을 때 부모님께 당분간 생활비를 보조해 달라고 요구한다.</b>						
1) 생활비 보조를 거절하지 않을까 걱정되거나 불안하다	1	2	3	4	5	6	
2) 생활비를 보조해 주시리라 예상된다	1	2	3	4	5	6	

<b>상황11.</b>	<b>방학 기간 동안, 친구에게 나와 함께 여행을 가자고 제안한다.</b>						
1) 친구가 여행 제의를 거절하지 않을까 걱정되거나 불안하다	1	2	3	4	5	6	
2) 친구가 여행 제의를 받아들일 것이라 예상된다	1	2	3	4	5	6	

<b>상황12.</b>	<b>남자(여자)친구와 심하게 다투고 난 후, 먼저 전화해서 만나고 싶다고 말한다.</b>						
1) 그 친구가 만남을 거절할지 걱정되거나 불안하다	1	2	3	4	5	6	
2) 그 친구가 만나자는 제의를 받아들일 것이라 예상된다	1	2	3	4	5	6	

<b>상황13.</b>	<b>친구에게 어떤 물건을 빌려 달라고 요구한다.</b>						
1) 친구가 물건을 빌려줄지 걱정되거나 불안하다	1	2	3	4	5	6	
2) 친구가 물건을 빌려줄 것이라 예상된다	1	2	3	4	5	6	

<b>상황14.</b>	<b>부모님께 내가 참여하는 중요한 행사에 참석해 달라고 요청한다.</b>						
1) 부모님이 그 부탁을 들어줄지 걱정되거나 불안하다	1	2	3	4	5	6	
2) 부모님이 그 부탁을 들어줄 것이라 예상된다	1	2	3	4	5	6	

<b>상황15.</b>	<b>친구에게 어려운 부탁을 한다.</b>						
1) 친구가 그 부탁을 들어줄지 걱정되거나 불안하다	1	2	3	4	5	6	
2) 친구가 그 부탁을 들어줄 것이라 예상된다	1	2	3	4	5	6	

<b>상황16.</b>	<b>남자(여자)친구에게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는지 물어본다.</b>						
1) 남자(여자)친구가 나를 사랑할지 걱정되거나 불안하다	1	2	3	4	5	6	
2) 남자(여자)친구가 나를 사랑한다고 할 것이라 예상된다	1	2	3	4	5	6	

<b>상황17.</b>	<b>클럽에서 눈에 띄는 이성에게 다가가서 춤을 추자고 청한다.</b>						
1) 내 청을 거절할 것 같아 걱정되거나 불안하다	1	2	3	4	5	6	
2) 내 청을 받아들일 것이라 예상된다	1	2	3	4	5	6	

<b>상황18.</b>	<b>남자(여자)친구에게 부모님을 만나러 와 달라고 요청한다.</b>						
1) 내 청을 거절할 것 같아 걱정되거나 불안하다	1	2	3	4	5	6	
2) 내 청을 받아들일 것이라 예상된다	1	2	3	4	5	6	

- 다음은 여러분의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빠짐없이 응답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별 : 남(     ), 여(     )

연령 : 만     세 (     년생)

학년 : 1학년(     ), 2학년(     ), 3학년(     ), 4학년(     ), 기타(     )

전공 :           학과 (           계열)

설문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ABSTRACT

The Mediating Effects of Rejection Sensitivity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Behavioral Inhibition and Social Anxiety of College Students

Hye Yeong Gang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Seung A Jeo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a mediating factor in the relationship between behavioral inhibition and social anxiety in undergraduates and reveal their relationship by establishing rejection sensitivity as the third factor. For this purpose, this study set up a hypothesis that rejection sensitivity would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behavioral inhibition and social anxiety based on previous researches. Also, this study was intended to investigate whether behavioral inhibition disposition had a direct effect and an indirect effect via rejection sensitivity on social anxiety. The study was conducted with 340 students attending in four universities located in Gwangju and Jeollanam-do. Data were collected by Social Interaction Anxiety Scale(SIAS) which measures an anxiety level by interpersonal interaction, Social Phobia Scale(SPS) which measures scrutiny anxiety in situations being scrutinized by others or performance anxiety in situations when others observe one's performance in an interpersonal relationship, the Korean version of Retrospective Self-Report Inhibition(K-RSRI) which consists of five factors such as shyness, social avoidance, somatization, simple fear, and separation anxiety associated with behavioral inhibition in younger elementary school students(1st-3rd

grades), and the Rejection Sensitivity Questionnaire(TRSQ) which presents 18 situations asking significant others(parents, friends, professors, boy/girlfriends, potential boy/girlfriends, and potential friends) for something in early adults' routine. Correlation between measure variables was examined based on data collected and a relationship was set up between measure variables based on previous research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SEM) was used to examine direct and indirect effect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results of correlation between measure variables of behavioral inhibition disposition, rejection sensitivity, and social anxiety in undergraduates suggested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all measure variables. Second, the results of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behavioral inhibition disposition, rejection sensitivity, and social anxiety suggested a direct effect between behavioral inhibition and social anxiety. A model which showed an indirect effect of rejection sensitivity was supported in the development of behavioral inhibition into social anxiety. Moreover, it was inferred that rejection sensitivity had a mediating effect on the development of behavioral inhibition into social anxie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behavioral inhibition and social anxiety.

Based on the results, cognitive-affective disposition such as behavioral inhibition and rejection sensitivity has an important effect on the development of social anxiety. Moreover, it is suggested that both high behavioral inhibition and high rejection sensitivity is associated with high possibility to develop social anxiety.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applied to understanding the path of behavioral inhibition disposition to trigger social anxiety and establishing factor priority in therapeutic intervention in counseling for undergraduates complaining of social

anxiety.

Key words: *Social anxiety · Behavioral inhibition · Rejection sensitivity · Mediating effect*